1st quarter of 2020
thebell league table

- Equity Capital Markets
- Debt Capital Markets
- Korean Paper
- Mergers & Acquisitions
- Fees

1st quarter of 2020
thebell League Table

Equity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공개(IPO),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BW, CB , EB 등) 발행, 블록딜(Block Deal)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 공모 거래와 사모 거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 기업공개(IPO)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상장과 분할 재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상장 및 해외시장 기업공개(IPO)는 제외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거래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블록딜(Block Deal)은 건당 500억원 이상의 거래로 제한한다.
- 블록딜(Block Deal)은 불특정 다수의 기관투자가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를 뜻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블록딜(Block Deal)은 거래 실행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주관사의 주관 실적, 인수사의 인수 실적, 모집주선사의 모집주선 실적을 각각 집계해 발표한다. 블록딜(Block Deal) 거래실적은 별도 집계 · 발표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신고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주관 실적은 대표 주관사(공동 주관사 제외) 별로 집계한다. 대표 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총 거래금액을 비례 안분한다. 다만 기업공개(IPO) 거래에 대해서는 공동 주관사의 실적을 인정하되, 인수 금액으로 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공모거래에 한해 집계한다. 모집주선 실적은 주선사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
- 부분잔액인수(주관사가 총 발행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 책임)의 경우 대표 주관사의 주관실적은 인수 책임금액으로 한다.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은 모집주선 실적에 반영한다.
- 부분잔액인수의 대표 주관사가 복수일 경우 주관실적은 각 대표 주관사가 인수한 금액과 타 인수단의 인수금액을 균등 배분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 수수료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모거래의 수수료는 집계하지 않는다.
- 주관 실적에 대해서는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한 조정 리그테이블을 시범적으로 발표한다.

Overview

주식자본시장(ECM)은 예상대로 큰 충격을 받음. 2020년 1분기 발행규모가 5년 전 수준으로 후퇴. ECM의 꽃인 기업공개(IPO) 시장 딜 가뭄이 더 심해짐. 불황으로 불렸던 2019년에 비해서도 3분의1 토막이 났음.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국면에 투심이 모일 리 없었음. 주식연계증권(ELB) 시장이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

◇ECM 거래액 5년래 최저…IPO는 70% 급감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유상증자(Rights Offering, RO)와 기업공개(IPO), 주식연계증권(ELB) 딜을 합산한 ECM 발행액은 6조5293억원으로 집계. 2019년 1분기 7조5758억원에 비해 13.8%(1조222억원) 감소.

5년 전인 2015년 1분기(6조5292억원)와 같은 금액. ECM시장은 2018년 1분기 12조5000억원대까지 성장했다가 2019년 1분기 불황을 거치며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음. 그리고 2020년 들어선 그간의 성장을 모두 반납하게 됨.

IPO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탓. 2020년 1분기 발행액이 2267억원으로 2019년 동기(7975억원)에 비해 71.6% 줄었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변동성이 부정적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투심이 극도로 위축된 영향.

코스피지수는 2020년 1월 초 2170 수준에서 3월 23일 1482로까지 낮아졌다가 31일 1740대로 소폭 회복. 3월부터는 하루하루 3~8%대 등락률을 보이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음. 이 탓에 대기업계열인 LS EV코리아를 비롯해, 메타넷엠플랫폼과 센코어테크과 SCM생명과학, 압타머사이언스, 노브메타파마, TCM생명과학 등이 상장을 철회.

한 초대형IB IPO 본부장은 "코스피지수가 1500이던 시절에도 상장은 잘됐기 때문에 지수하락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3~8% 등락률로 출렁이는 변동성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고 말함.

◇일반공모 유상증자 HDC현산 유일…ELB는 5년래 첫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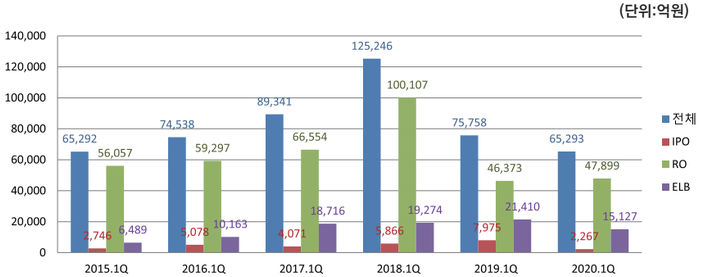
그나마 유상증자 시장은 선방. 증시영향을 받는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비상장사 딜이 많았기 때문. 2020년 1분기 4조7899억원으로 전년동기(4조6373억원)보다 3.3% 늘었음. 비상장사인 네이버파이낸셜(8000억원)과 에스케이씨에프티홀딩스(5239억원), 에스케이아이테크놀러지(4506억원), 하나금융투자(4997억원) 등이 주도.

일반공모 방식 빅딜은 상장사 HDC현대산업개발에 그침.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를 강행.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마련이 필요했던 탓. 코로나19 파장이 한창이었던 3월 초 청약을 진행. 본래 4000억원을 공모하려했지만 주가하락으로 최종 모집액은 3207억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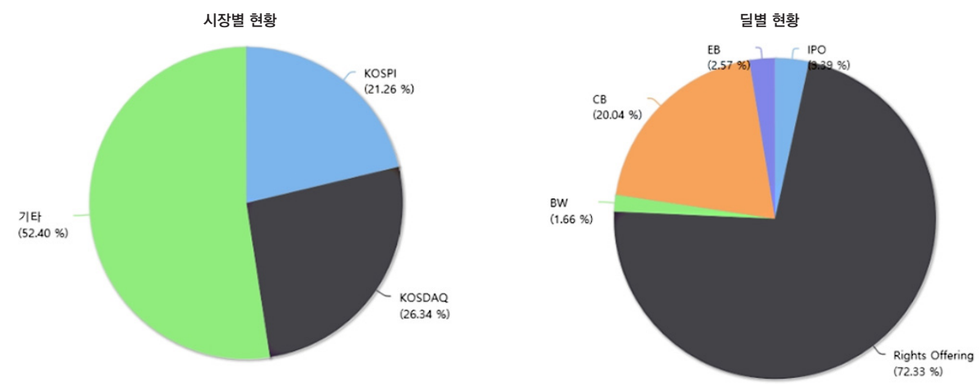
ELB시장은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2020년 1분기 1조512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1410억원) 29.3% 감소. 2015년 1분기 6489억원에서 2019년 1분기까지 4년 연속 성장만 지속했던 시장. 라임사태로 ELB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된 탓이 컸음. 증시침체도 이유.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는 시세차익 여부가 투심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1분기에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

ECM 딜 별 발행 추이

(단위:억원)



2020년 1분기 딜, 시장별 발행추이(자료:더벨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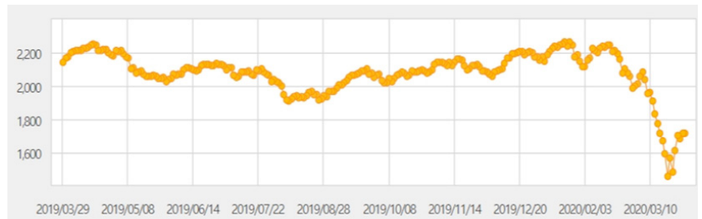
◇IPO시장 희망은 있다…빅딜 SK바이오팜·호반건설 관건

최악의 1분기를 보냈지만 IPO시장은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있음. 2020년 랜드마크 IPO로 꼽히던 SK바이오팜과 호반건설이 상장 계획을 접지 않았기 때문. 모두 조단위 공모를 추진하고 있음.

우선 SK바이오팜은 상반기 내 코스피 입성 계획을 현재까지 굳히고 있음. 증시 전반이 타격을 받았지만 바이오주는 충격을 덜 받거나 오히려 주목받고 있기 때문. 현재 예비심사까지 마치고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음. IB관계자는 "SK바이오팜은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은 미확정이지만, 상반기 내 입성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함.

호반건설은 상반기 내 코스피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할 계획. 이에 연초 대표주관사 인력을 본사에

코스피지수(사진:한국거래소)



상주시켰음. 코로나19 여파로 피어그룹인 국내 건설사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부담이지만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음. 또 다른 IB관계자는 "상반기 내 예비심사청구 계획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말함.

중소형딜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엔 다시 살아나고 있음. 아직 확실한 흐름이라고 확정하긴 이르지만 코스피지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코스피지수는 3월 24일 전일 대비 8.6%, 25일 5.89%는 상승한데 이어, 26일엔 -1.09%, 27일엔 1.87%, 30일인 -0.04% 등락을 보였음.

증시안정화펀드(증안펀드)도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 10조7000억원 규모 증안펀드는 4월초부터 가동.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상품에 투자됨.

IB관계자는 "국내 증시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봐도 변동폭이 줄고 있고 하향세도 멈추는 분위기라 중소형딜 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증안펀드가 가동되면 유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해 IPO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함.

2020년 1분기 ECM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142,509	5	19.04	138,863
2	신한금융투자	124,650	2	16.66	100,589
3	유진투자증권	95,300	2	12.73	145,245
4	미래에셋대우	93,670	2	12.52	46,932
5	NH투자증권	77,290	2	10.33	49,228
6	키움증권	64,150	1	8.57	46,608
7	유안타증권	40,770	1	5.45	34,754
8	한양증권	19,800	1	2.65	62,914
9	삼성증권	18,360	1	2.45	15,856
10	SK증권	11,000	1	1.47	11,067
11	한국투자증권	10,850	1	1.45	16,866
12	현대차증권	10,472	1	1.40	24,347
13	교보증권	10,200	1	1.36	10,263
14	하나금융투자	9,000	1	1.20	10,061
15	신영증권	8,400	1	1.12	8,452
16	IBK투자증권	6,942	1	0.93	17,933
17	케이프투자증권	5,000	1	0.67	8,384
총합계		748,362	25	100.00	748,362

* ECM 거래(IPO, 유상증자, ELB)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0년 1분기 ECM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58,546	5	21.19
2	신한금융투자	120,712	2	16.13
3	유진투자증권	115,275	3	15.40
4	키움증권	78,109	2	10.44
5	미래에셋대우	65,186	2	8.71
6	NH투자증권	61,252	2	8.18
7	유안타증권	40,770	1	5.45
8	삼성증권	18,360	1	2.45
9	현대차증권	14,900	2	1.99
10	한양증권	13,860	1	1.85
11	SK증권	11,000	1	1.47
12	한국투자증권	10,850	1	1.45
13	교보증권	10,200	1	1.36
14	하나금융투자	9,000	1	1.20
15	신영증권	8,400	1	1.12
16	IBK투자증권	6,942	1	0.93
17	케이프투자증권	5,000	1	0.67
총합계		748,362	28	100.00

* ECM 딜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ECM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유진투자증권	60,500	1	18.03	44,109
1	신한금융투자	60,500	1	18.03	69,517
3	KB증권	58,359	3	17.39	67,076
4	유안타증권	40,770	1	12.15	34,754
5	미래에셋대우	29,520	1	8.80	21,038
6	삼성증권	18,360	1	5.47	15,856
7	NH투자증권	13,140	1	3.92	18,156
8	SK증권	11,000	1	3.28	11,067
9	한국투자증권	10,850	1	3.23	16,866
10	교보증권	10,200	1	3.04	10,263
11	하나금융투자	9,000	1	2.68	10,061
12	신영증권	8,400	1	2.50	8,452
13	케이프투자증권	5,000	1	1.49	8,384
총합계		335,599	15	100.00	335,599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신한금융투자	72,600	1	21.63
2	KB증권	58,359	3	17.39
3	유진투자증권	48,400	1	14.42
4	유안타증권	40,770	1	12.15
5	미래에셋대우	25,092	1	7.48
6	삼성증권	18,360	1	5.47
7	NH투자증권	13,140	1	3.92
8	SK증권	11,000	1	3.28
9	한국투자증권	10,850	1	3.23
10	교보증권	10,200	1	3.04
11	하나금융투자	9,000	1	2.68
12	신영증권	8,400	1	2.50
13	케이프투자증권	5,000	1	1.49
14	현대차증권	4,428	1	1.32
총합계		335,599	16	100.00

* 기업공개(IPO)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공동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기업공개(IPO) 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대표주관사	점유율 (%)
1	제이앤티씨	121,000	유진투자, 신한금융투자	36.05
2	엔피디	40,770	유안타	12.15
3	플레이디	31,359	KB	9.34
4	레몬	29,520	미래에셋대우	8.80
5	엔에프씨	18,360	삼성	5.47
6	서울바이오시스	15,000	KB	4.47
7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13,140	NH투자	3.92
8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12,000	KB	3.58
9	에스케이제6호기업인수목적	11,000	SK	3.28
10	서남	10,850	한국투자	3.23
11	위세아이텍	10,200	교보	3.04
12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	9,000	하나대투	2.68
13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8,400	신영	2.50
14	케이프이에스제4호기업인수목적	5,000	케이프	1.49
합계		335,599		100.00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기업별 수수료 순위

순위	종목명	수수료 (백만)	수수료 (bp)	대표주관사
1	제이앤티씨	3,388	280.00	유진투자, 신한금융투자
2	엔피디	1,036	254.17	유안타
3	플레이디	808	257.50	KB
4	서울바이오시스	773	515.00	KB
5	레몬	738	250.00	미래에셋대우
6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541	412.00	NH투자
7	서남	503	463.50	한국투자
8	엔에프씨	473	257.50	삼성
9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420	350.00	KB
10	에스케이제6호기업인수목적	330	300.00	SK
11	위세아이텍	306	300.00	교보
12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	300	333.33	하나대투
13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252	300.00	신영
14	케이프이에스제4호기업인수목적	250	500.00	케이프투자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 수수료율(bp)은 각 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을 기준으로 계산.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별 현황

시장	발행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코스피	0	0건	0.00
코스닥	335,599	14건	100.00
합계	335,599	14건	100.00

2020년 1분기 유상증자(R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키움증권	64,150	1	16.33	46,608
1	미래에셋대우	64,150	1	16.33	25,893
1	신한금융투자	64,150	1	16.33	31,072
1	NH투자증권	64,150	1	16.33	31,072
1	KB증권	64,150	1	16.33	51,787
6	유진투자증권	34,800	1	8.86	101,136
7	한양증권	19,800	1	5.04	62,914
8	현대차증권	10,472	1	2.67	24,347
9	IBK투자증권	6,942	1	1.77	17,933
총합계		392,763	9	100.00	392,763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0년 1분기 유상증자(RO)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2020년 1분기 유상증자(R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80,187	1	20.42
2	키움증권	78,109	2	19.89
3	유진투자증권	66,875	2	17.03
4	신한금융투자	48,112	1	12.25
4	NH투자증권	48,112	1	12.25
6	미래에셋대우	40,094	1	10.21
7	한양증권	13,860	1	3.53
8	현대차증권	10,472	1	2.67
9	IBK투자증권	6,942	1	1.77
총합계		392,763	11	100.00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유상증자(RO)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네이버파이낸셜	799,999	1	
2	에스케이씨에프티홀딩스	523,900	1	
3	하나금융투자	499,730	1	
4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450,264	1	
5	HDC현대산업개발	320,749	1	키움,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KB
6	두산중공업	238,199	1	
7	하이투자증권	200,307	2	
8	현대백화점면세점	200,000	1	
9	하나투어	128,927	1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20,000	1	

2020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20,000	1	100.00	20,000
총합계		20,000	1	100.00	2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합계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0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20,000	1	100.00	20,000
총합계		20,000	1	100.00	2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0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0,000	1	100.00
총합계		20,000	1	100.00

* 주식연계증권(EL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전환사채(C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전환사채(C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전환사채(C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화승엔터프라이즈	150,000	1	
2	헬릭스미스	80,000	1	
3	두올산업	78,012	2	
4	루미마이크로	50,000	4	
5	영인프런티어	40,000	1	
6	ISC	30,000	1	
7	제이스테판	30,000	3	
8	금호에이치티	30,000	3	
9	서진시스템	30,000	1	
10	쎌마테라퓨틱스	29,000	2	

2020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0,000	1	100.00
총합계		20,000	1	1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전환사채(C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전환사채(C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교환사채(E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조정실적(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교환사채(E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대표주관과 공동주관 별도 집계 후 전체주관실적에서 합산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교환사채(E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세아베스틸	100,000	1	
2	위닉스	40,700	1	
3	이트론	16,960	1	
4	브이티지엠피	14,000	1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코씬바이오	50,000	1	
2	서울리거	20,000	1	KB
3	영인프런티어	20,000	1	
4	세경하이테크	10,000	1	
5	샘코	6,000	1	
6	엘앤씨바이오	5,000	1	
7	지오엠씨	200	1	

2020년 1분기 교환사채(E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교환사채(E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0년 1분기 블록딜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점유율은 총금액 대비 사별 거래금액 기준
* 500억원 이상 거래 한정

2020년 1분기 교환사채(E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1st quarter of 2020
thebell League Table

Debt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된 일반 회사채(SB)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채권은 제외한다.
- 일반회사채(SB)에는 무보증채권과 보증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공사채는 제외한다.
- 옵션부(조기상환부채권, 수시상환채권) 채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되, 옵션 내용을 별도 표기한다.
- 주식관련 사채(CB, BW,EB)는 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 중 금융채를 별도 집계하되, 은행채는 제외한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제외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중 대표주관사가 주관하고 인수사가 인수한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발행일은 납입일 기준으로 하며 발행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환산해 작성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을 대상으로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공동주관 실적은 집계하지 않는다.
-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은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에 한해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일괄신고채권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한다. 단 인수실적의 경우 수요예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주관 실적을 산정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집계한다. 종합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 대표주관 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대표주관 실적은 총발행금액을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 대표주관사에 대한 실적 배분은 해당 회사채의 회차별로 한다. 회차 내에서 트렌치가 분리돼 발행된 채권이라도 대표주관사 업무를 수행한 모든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인수실적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각 인수사의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은 각 대표주관사 또는 인수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해 조정한다. 이때 수수료는 시장평균 수수료 대비 해당 대표주관 또는 인수사의 상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표주관의 경우 수수료 수취가 일반화되는 적절한 시점부터 조정실적을 산정한다.

Overview

시장의 예상은 빗나감. 2020년 1분기 공모채 발행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함. 부채자본시장(DCM)의 물량 공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뤘지만 발행량은 오히려 늘었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 주 원인이란 분석.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중순 이후 발행량이 급감한 것은 우려 요인.

외적으로는 팽창한 반면 질적으로는 다소 후퇴한 모습. AA급 우량채 중심으로만 조달이 확대된 데다 단기물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2분기 시장 전망은 엇갈림.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월 말부터 조달시장 내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에서 2분기 발행물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 반면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 조달행렬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면서 오히려 2분기 물량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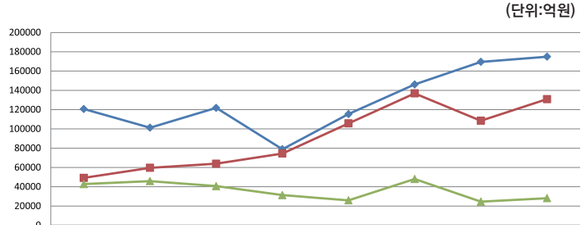
◇SB, 분기 신기록 경신…FB·ABS, 전년 대비 증가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발행된 일반 회사채(SB), 여전채(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합산한 국내 공모 회사채 발행액은 33조3971억원으로 집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분기(30조2565억원) 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움.

'회사채 시장의 꽃' SB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빛났다. 2012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최대 발행 물량을 기록. 2020년 1분기 SB 발행액은 17조4910억원이다. 17조원을 돌파한 건 2019년 2분기(17조80억원) 이후 두 번째. 당시 기록을 갈아치우며 분기 신기록을 경신.

1분기 회사채 발행량 추이

(단위:억원)



	2013. 1Q	2014. 1Q	2015. 1Q	2016. 1Q	2017. 1Q	2018. 1Q	2019. 1Q	2020. 1Q
SB	120651	101269	121790	78930	115400	146070	169520	174910
FB	49210	59630	63925	74487	105711	136810	108500	130880
ABS	42813	45840	40668	31366	25936	48014	24545	28181

가장 많은 SB를 발행한 기업집단은 단연 SK그룹(2조5600억원). 전체 시장의 15%에 달하는 SB물량을 SK그룹에서 발행했음. 이어 LG그룹이 1조9100억원으로 뒤를 이음. 현대자동차와 미래에셋도 1조원대 발행 그룹에 포함. 개별 기업 가운데 최대 빅이슈어는 1조600억원을 조달한 SK하이닉스였다. 미래에셋대우도 SB시장에서 1조원의 자금을 확보했음.

FB와 ABS 발행액도 전년 대비 증가함. 2020년 1분기 FB발행액은 13조88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8500억원) 대비 2조원 이상 늘었음. ABS발행액도 2조818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545억원) 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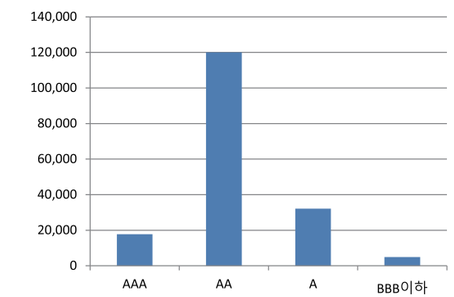
◇경기 불확실성 속 선제적 조달…2분기 전망 '불투명'

2020년 회사채 시장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주를 이뤘음. 하지만 예상은 빗나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함.

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조달 여건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3월 실적 발표에 앞서 2월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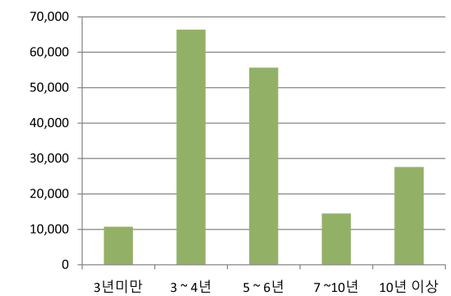
신용등급별 SB 발행량

(단위:억원)



만기별 SB 발행량

(단위:억원)



다만 AA우량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데다 단기물 비중이 증가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음.

SB 발행량 가운데 AA급 비중은 68.6%로 2019년 1분기(58.7%)보다 더 늘었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수급 매칭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됨.

단기물 비중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띔. SB 발행량 가운데 7년 이상 장기물 비중은 24%로, 전년 동기(28%) 대비 축소됐음. 반면 5년 미만 단기물의 44%로, 2019년 1분기(37%)와 비교해 오히려 비중이 늘었음.

2분기 전망은 불투명함. 코로나19 여파로 투심이 위축되자 3월 들어 기업들이 선뜻 발행시장에 나서지 않고 있음.

회사채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수도 존재. 기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선제적 조달 행렬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옴. 정책금융 지원까지 맞물려 하반기 대기 물량이 2분기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정부는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인수제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인수 프로그램 등 24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

시장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것은 맞지만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 이슈 이후 수시로 조달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분기는 혼란한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말함.

2020년 1분기 국내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8,056,075	80	25.54
2	NH투자증권	6,782,548	63	21.50
3	한국투자증권	4,403,881	40	13.96
4	미래에셋대우	2,921,487	24	9.26
5	SK증권	2,459,833	10	7.80
6	교보증권	1,350,000	9	4.28
7	키움증권	1,077,881	10	3.42
8	신한금융투자	759,667	7	2.41
9	한양증권	628,000	10	1.99
10	현대차증권	450,127	4	1.43
11	DB금융투자	324,667	7	1.03
12	삼성증권	312,500	2	0.99
13	부국증권	295,127	4	0.94
14	하이투자증권	257,500	3	0.82
15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75
16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70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67
18	유안타증권	185,842	5	0.59
19	IBK투자증권	162,627	4	0.52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97,127	4	0.31
21	한국산업은행	85,714	1	0.27
22	메리츠종금증권	80,066	3	0.25
23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1
24	KTB투자증권	50,000	2	0.16
25	대신증권	40,000	1	0.13
26	신영증권	19,000	1	0.06
27	DS투자증권	10,000	1	0.03
총합계		31,544,669	303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4,177,376	12.68	18.60	3,994,424
2	NH투자증권	3,617,000	10.98	20.24	3,836,870
3	한국투자증권	3,361,500	10.20	17.08	3,218,783
4	SK증권	2,973,500	9.03	18.91	2,934,848
5	미래에셋대우	2,151,895	6.53	18.62	1,994,283
6	이베스트투자증권	1,861,000	5.65	12.85	2,269,061
7	한화투자증권	1,464,493	4.45	15.90	1,486,629
8	신한금융투자	1,220,000	3.70	17.46	1,071,250
9	키움증권	1,135,200	3.45	22.35	1,212,169
10	교보증권	1,045,000	3.17	12.35	934,932
11	현대차증권	950,303	2.88	18.42	900,036
12	한양증권	919,000	2.79	11.63	975,396
13	부국증권	840,397	2.55	15.25	934,001
14	하이투자증권	791,000	2.40	19.68	896,541
15	BNK투자증권	630,000	1.91	6.88	391,849
16	IBK투자증권	610,343	1.85	19.22	614,250
17	유안타증권	582,680	1.77	22.42	676,432
18	DB금융투자	540,700	1.64	12.12	533,154
19	삼성증권	496,500	1.51	18.13	465,764
20	하나금융투자	466,500	1.42	18.71	479,068
21	신영증권	426,000	1.29	14.21	350,436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405,360	1.23	16.34	635,683
23	한국산업은행	381,000	1.16	33.11	476,987
24	KTB투자증권	380,000	1.15	8.12	311,983
25	유진투자증권	370,000	1.12	9.33	330,621
26	메리츠종금증권	358,924	1.09	7.04	229,228
27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0.55	8.69	161,768
28	대신증권	172,000	0.52	30.90	234,930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0.52	9.13	162,736
30	흥국증권	100,000	0.30	7.10	72,145
31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1	11.29	54,328
32	DS투자증권	47,000	0.14	11.02	48,601
33	케이알투자증권	40,000	0.12	13.95	47,098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3	8.00	8,386
총합계		32,944,669	100.00	17.21	32,944,669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482,833	75	26.29
2	NH투자증권	6,696,833	62	23.53
3	한국투자증권	4,008,167	38	14.08
4	미래에셋대우	2,375,833	21	8.35
5	SK증권	1,473,333	7	5.18
6	교보증권	1,350,000	9	4.74
7	키움증권	992,167	9	3.49
8	신한금융투자	759,667	7	2.67
9	한양증권	628,000	10	2.21
10	현대차증권	425,000	2	1.49
11	DB금융투자	324,667	7	1.14
12	삼성증권	312,500	2	1.10
13	부국증권	270,000	2	0.95
14	하이투자증권	257,500	3	0.90
15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83
16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77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74
18	IBK투자증권	137,500	2	0.48
1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2,000	2	0.25
20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4
21	KTB투자증권	50,000	2	0.18
22	대신증권	40,000	1	0.14
22	유안타증권	40,000	1	0.14
24	신영증권	19,000	1	0.07
25	DS투자증권	10,000	1	0.04
총합계		28,460,000	272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3,660,600	12.26	18.18	3,618,137
2	NH투자증권	3,437,000	11.51	18.93	3,562,551
3	한국투자증권	3,161,500	10.59	15.53	2,937,719
4	SK증권	2,272,000	7.61	20.96	2,645,023
5	미래에셋대우	1,848,000	6.19	17.16	1,712,666
6	이베스트투자증권	1,801,000	6.03	12.94	2,248,841
7	한화투자증권	1,433,000	4.80	15.03	1,427,602
8	키움증권	1,075,200	3.60	17.14	978,286
9	신한금융투자	1,050,000	3.52	16.65	942,738
10	교보증권	995,000	3.33	10.35	846,861
11	현대차증권	925,000	3.10	18.90	899,214
12	한양증권	919,000	3.08	11.63	975,396
13	하이투자증권	761,000	2.55	15.89	779,598
14	부국증권	745,000	2.49	10.55	767,147
15	BNK투자증권	630,000	2.11	6.88	391,849
16	IBK투자증권	585,000	1.96	20.01	613,429
17	DB금융투자	540,700	1.81	12.12	533,154
18	삼성증권	496,500	1.66	18.13	465,764
19	유안타증권	468,000	1.57	13.55	449,926
20	하나금융투자	466,500	1.56	18.71	479,068
2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80,000	1.27	17.37	634,862
21	KTB투자증권	380,000	1.27	8.12	311,983
23	유진투자증권	370,000	1.24	9.33	330,621
24	신영증권	341,000	1.14	10.62	268,378
25	메리츠종금증권	295,000	0.99	8.36	227,109
26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0.60	8.69	161,768
27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0.57	9.13	162,736
28	대신증권	157,000	0.53	22.80	176,462
29	흥국증권	100,000	0.33	7.10	72,145
30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3	11.29	54,328
31	한국산업은행	50,000	0.17	17.00	80,554
32	DS투자증권	47,000	0.16	11.02	48,601
33	케이알투자증권	40,000	0.13	13.95	47,098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3	8.00	8,386
총합계		29,860,000	100.00	15.92	29,86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785,833	32	24.63
2	NH투자증권	3,333,833	27	21.69
3	한국투자증권	2,343,167	20	15.24
4	미래에셋대우	1,685,833	15	10.97
5	SK증권	1,243,333	5	8.09
6	신한금융투자	676,667	5	4.40
7	키움증권	502,167	5	3.27
8	현대차증권	425,000	2	2.76
9	교보증권	350,000	2	2.28
10	삼성증권	312,500	2	2.03
11	한화투자증권	237,500	2	1.55
12	하이투자증권	217,500	2	1.41
13	IBK투자증권	137,500	2	0.89
14	유안타증권	40,000	1	0.26
15	이베스트투자증권	37,500	1	0.24
16	DB금융투자	24,667	1	0.16
17	신영증권	19,000	1	0.12
총합계		15,372,000	125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2,862,100	17.06	20.59	2,820,914
2	NH투자증권	2,567,000	15.31	22.28	2,736,586
3	한국투자증권	1,871,500	11.16	20.71	1,854,542
4	SK증권	1,645,000	9.81	25.05	1,972,276
5	미래에셋대우	1,418,000	8.45	19.95	1,354,175
6	신한금융투자	830,000	4.95	18.82	747,560
7	키움증권	825,200	4.92	20.28	800,875
8	현대차증권	795,000	4.74	20.61	784,172
9	한화투자증권	723,000	4.31	20.15	697,308
10	IBK투자증권	515,000	3.07	20.92	515,682
11	하이투자증권	441,000	2.63	19.43	410,153
12	삼성증권	422,500	2.52	19.85	401,299
13	하나금융투자	380,000	2.27	20.13	366,123
14	교보증권	265,000	1.58	15.38	195,026
15	유안타증권	188,000	1.12	20.05	180,429
16	이베스트투자증권	165,000	0.98	20.67	163,200
17	DB금융투자	150,700	0.90	17.94	129,411
18	대신증권	147,000	0.88	23.74	167,028
19	한양증권	145,000	0.86	17.59	122,041
20	신영증권	81,000	0.48	24.07	93,325
21	BNK투자증권	60,000	0.36	18.33	52,645
22	부국증권	55,000	0.33	18.18	47,859
2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50,000	0.30	20.00	47,859
24	메리츠종금증권	40,000	0.24	13.75	26,323
25	유진투자증권	30,000	0.18	18.33	26,323
25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18	16.67	23,930
27	KTB투자증권	20,000	0.12	10.00	9,572
28	한국산업은행	10,000	0.06	15.00	7,179
28	케이프투자증권	10,000	0.06	4.00	1,914
28	DS투자증권	10,000	0.06	10.00	4,786
28	흥국증권	10,000	0.06	4.00	1,914
28	케이알투자증권	10,000	0.06	20.00	9,572
총합계		16,772,000	100.00	20.89	16,772,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697,000	43	28.25
2	NH투자증권	3,363,000	35	25.70
3	한국투자증권	1,665,000	18	12.72
4	교보증권	1,000,000	7	7.64
5	미래에셋대우	690,000	6	5.27
6	한양증권	628,000	10	4.80
7	키움증권	490,000	4	3.74
8	DB금융투자	300,000	6	2.29
9	부국증권	270,000	2	2.06
10	SK증권	230,000	2	1.76
11	유진투자증권	220,000	3	1.68
12	BNK투자증권	210,000	1	1.60
13	신한금융투자	83,000	2	0.63
1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2,000	2	0.55
15	KTB투자증권	50,000	2	0.38
16	하이투자증권	40,000	1	0.31
16	대신증권	40,000	1	0.31
18	이베스트투자증권	30,000	1	0.23
19	DS투자증권	10,000	1	0.08
총합계		13,088,000	147	100.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0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이베스트투자증권	1,636,000	12.50	12.16	2,085,641
2	한국투자증권	1,290,000	9.86	8.01	1,083,177
3	NH투자증권	870,000	6.65	9.06	825,965
4	KB증권	798,500	6.10	9.52	797,223
5	한양증권	774,000	5.91	10.52	853,355
6	교보증권	730,000	5.58	8.52	651,835
7	한화투자증권	710,000	5.42	9.81	730,294
8	부국증권	690,000	5.27	9.94	719,288
9	SK증권	627,000	4.79	10.24	672,747
10	BNK투자증권	570,000	4.36	5.68	339,204
11	미래에셋대우	430,000	3.29	7.95	358,491
12	DB금융투자	390,000	2.98	9.88	403,743
13	KTB투자증권	360,000	2.75	8.01	302,411
14	유진투자증권	340,000	2.60	8.54	304,298
15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30,000	2.52	16.97	587,003
16	하이투자증권	320,000	2.44	11.01	369,445
17	유안타증권	280,000	2.14	9.18	269,497
18	신영증권	260,000	1.99	6.42	175,053
19	메리츠종금증권	255,000	1.95	7.51	200,786
20	키움증권	250,000	1.91	6.77	177,411
21	신한금융투자	220,000	1.68	8.46	195,178
22	케이프투자증권	170,000	1.30	8.97	159,853
2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1.30	9.13	162,736
24	현대차증권	130,000	0.99	8.44	115,042
25	흥국증권	90,000	0.69	7.44	70,231
26	하나금융투자	86,500	0.66	12.46	112,946
27	삼성증권	74,000	0.57	8.31	64,465
28	IBK투자증권	70,000	0.53	13.32	97,746
29	카카오페이증권	40,000	0.31	7.25	30,398
29	한국산업은행	40,000	0.31	17.50	73,375
31	DS투자증권	37,000	0.28	11.30	43,816
32	케이알투자증권	30,000	0.23	11.93	37,526
33	대신증권	10,000	0.08	9.00	9,434
33	우리종합금융	10,000	0.08	8.00	8,386
총합계		13,088,000	100.00	9.54	13,088,0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0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SK증권	986,500	3	31.98
2	KB증권	573,242	5	18.58
3	미래에셋대우	545,653	3	17.69
4	한국투자증권	395,714	2	12.83
5	유안타증권	145,842	4	4.73
6	키움증권	85,714	1	2.78
7	NH투자증권	85,714	1	2.78
7	한국산업은행	85,714	1	2.78
9	메리츠종금증권	80,066	3	2.60
10	IBK투자증권	25,127	2	0.81
11	현대차증권	25,127	2	0.81
1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5,127	2	0.81
12	부국증권	25,127	2	0.81
총합계		3,084,669	31	100.00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0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SK증권	701,500	22.74	12.26	289,825
2	KB증권	516,776	16.75	21.61	376,287
3	한국산업은행	331,000	10.73	35.54	396,433
4	미래에셋대우	303,895	9.85	27.50	281,617
5	한국투자증권	200,000	6.48	41.70	281,064
6	NH투자증권	180,000	5.84	45.22	274,319
7	신한금융투자	170,000	5.51	22.43	128,512
8	유안타증권	114,680	3.72	58.61	226,506
9	부국증권	95,397	3.09	51.90	166,854
10	신영증권	85,000	2.76	28.65	82,058
11	메리츠종금증권	63,924	2.07	0.98	2,119
12	이베스트투자증권	60,000	1.95	10.00	20,220
12	키움증권	60,000	1.95	115.67	233,883
14	교보증권	50,000	1.62	52.27	88,071
15	한화투자증권	31,493	1.02	55.62	59,027
16	하이투자증권	30,000	0.97	115.67	116,943
1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5,360	0.82	0.96	822
18	IBK투자증권	25,343	0.82	0.96	822
19	현대차증권	25,303	0.82	0.96	822
20	대신증권	15,000	0.49	115.66	58,467
총합계		3,084,669	100.00	29.67	3,084,669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0년 1분기 원화채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8,056,075	80	25.57
2	NH투자증권	6,782,548	63	21.53
3	한국투자증권	4,403,881	40	13.98
4	미래에셋대우	2,903,553	24	9.22
5	SK증권	2,459,833	10	7.81
6	교보증권	1,350,000	9	4.28
7	키움증권	1,077,881	10	3.42
8	신한금융투자	759,667	7	2.41
9	한양증권	628,000	10	1.99
10	현대차증권	450,127	4	1.43
11	DB금융투자	324,667	7	1.03
12	삼성증권	312,500	2	0.99
13	부국증권	295,127	4	0.94
14	하이투자증권	257,500	3	0.82
15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75
16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70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67
18	유안타증권	185,842	5	0.59
19	IBK투자증권	162,627	4	0.52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97,127	4	0.31
21	한국산업은행	85,714	1	0.27
22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1
23	메리츠종금증권	62,133	3	0.20
24	KTB투자증권	50,000	2	0.16
25	대신증권	40,000	1	0.13
26	신영증권	19,000	1	0.06
27	DS투자증권	10,000	1	0.03
총합계		31,508,802	303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원화채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4,177,376	12.69	18.60	3,990,195
2	NH투자증권	3,617,000	10.99	20.24	3,833,787
3	한국투자증권	3,361,500	10.21	17.08	3,215,624
4	SK증권	2,973,500	9.04	18.91	2,931,590
5	미래에셋대우	2,133,976	6.48	18.77	1,990,520
6	이베스트투자증권	1,861,000	5.66	12.85	2,268,834
7	한화투자증권	1,459,109	4.43	15.96	1,485,786
8	신한금융투자	1,220,000	3.71	17.46	1,069,806
9	키움증권	1,135,200	3.45	22.35	1,209,540
10	교보증권	1,045,000	3.18	12.35	933,942
11	현대차증권	950,303	2.89	18.42	900,027
12	한양증권	919,000	2.79	11.63	975,396
13	부국증권	840,397	2.55	15.25	932,125
14	하이투자증권	791,000	2.40	19.68	895,226
15	BNK투자증권	630,000	1.91	6.88	391,849
16	IBK투자증권	610,343	1.85	19.22	614,241
17	유안타증권	582,680	1.77	22.42	673,886
18	DB금융투자	540,700	1.64	12.12	533,154
19	삼성증권	496,500	1.51	18.13	465,764
20	하나금융투자	466,500	1.42	18.71	479,068
21	신영증권	426,000	1.29	14.21	349,513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405,360	1.23	16.34	635,674
23	한국산업은행	381,000	1.16	33.11	472,531
24	KTB투자증권	380,000	1.15	8.12	311,983
25	유진투자증권	370,000	1.12	9.33	330,621
26	메리츠종금증권	346,360	1.05	7.26	228,785
27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0.55	8.69	161,768
28	대신증권	172,000	0.52	30.90	234,272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0.52	9.13	162,736
30	흥국증권	100,000	0.30	7.10	72,145
31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1	11.29	54,328
32	DS투자증권	47,000	0.14	11.02	48,601
33	케이알투자증권	40,000	0.12	13.95	47,098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3	8.00	8,386
총합계		32,908,802	100.00	17.22	32,908,802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0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482,833	75	26.29
2	NH투자증권	6,696,833	62	23.53
3	한국투자증권	4,008,167	38	14.08
4	미래에셋대우	2,375,833	21	8.35
5	SK증권	1,473,333	7	5.18
6	교보증권	1,350,000	9	4.74
7	키움증권	992,167	9	3.49
8	신한금융투자	759,667	7	2.67
9	한양증권	628,000	10	2.21
10	현대차증권	425,000	2	1.49
11	DB금융투자	324,667	7	1.14
12	삼성증권	312,500	2	1.10
13	부국증권	270,000	2	0.95
14	하이투자증권	257,500	3	0.90
15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83
16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77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74
18	IBK투자증권	137,500	2	0.48
1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2,000	2	0.25
20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4
21	KTB투자증권	50,000	2	0.18
22	대신증권	40,000	1	0.14
22	유안타증권	40,000	1	0.14
24	신영증권	19,000	1	0.07
25	DS투자증권	10,000	1	0.04
총합계		28,460,000	272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0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평균수수료(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3,660,600	12.26	18.18	3,618,137
2	NH투자증권	3,437,000	11.51	18.93	3,562,551
3	한국투자증권	3,161,500	10.59	15.53	2,937,719
4	SK증권	2,272,000	7.61	20.96	2,645,023
5	미래에셋대우	1,848,000	6.19	17.16	1,712,666
6	이베스트투자증권	1,801,000	6.03	12.94	2,248,841
7	한화투자증권	1,433,000	4.80	15.03	1,427,602
8	키움증권	1,075,200	3.60	17.14	978,286
9	신한금융투자	1,050,000	3.52	16.65	942,738
10	교보증권	995,000	3.33	10.35	846,861
11	현대차증권	925,000	3.10	18.90	899,214
12	한양증권	919,000	3.08	11.63	975,396
13	하이투자증권	761,000	2.55	15.89	779,598
14	부국증권	745,000	2.49	10.55	767,147
15	BNK투자증권	630,000	2.11	6.88	391,849
16	IBK투자증권	585,000	1.96	20.01	613,429
17	DB금융투자	540,700	1.81	12.12	533,154
18	삼성증권	496,500	1.66	18.13	465,764
19	유안타증권	468,000	1.57	13.55	449,926
20	하나금융투자	466,500	1.56	18.71	479,068
2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80,000	1.27	17.37	634,862
21	KTB투자증권	380,000	1.27	8.12	311,983
23	유진투자증권	370,000	1.24	9.33	330,621
24	신영증권	341,000	1.14	10.62	268,378
25	메리츠종금증권	295,000	0.99	8.36	227,109
26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0.60	8.69	161,768
27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0.57	9.13	162,736
28	대신증권	157,000	0.53	22.80	176,462
29	흥국증권	100,000	0.33	7.10	72,145
30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3	11.29	54,328
31	한국산업은행	50,000	0.17	17.00	80,554
32	DS투자증권	47,000	0.16	11.02	48,601
33	케이알투자증권	40,000	0.13	13.95	47,098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3	8.00	8,386
총합계		29,860,000	100.00	15.92	29,86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0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미래에셋대우	17,934	1	50.00
1	메리츠종금증권	17,934	1	50.00
총합계		35,867	2	100.00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후순위채는 ABS만 포함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0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평균수수료(bp)	조정실적(백만)
1	미래에셋대우	17,919	49.96	1.00	17,924
2	메리츠종금증권	12,564	35.03	1.00	12,563
3	한화투자증권	5,384	15.01	1.00	5,381
총합계		35,867	100.00	1.00	35,867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0년 1분기 A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5,435,109	47	21.69
2	NH투자증권	5,315,000	47	21.21
3	한국투자증권	3,511,667	27	14.01
4	SK증권	2,419,833	9	9.66
5	미래에셋대우	2,397,439	18	9.57
6	교보증권	1,350,000	9	5.39
7	키움증권	890,000	6	3.55
8	신한금융투자	726,667	6	2.90
9	현대차증권	449,376	4	1.79
10	한양증권	370,000	5	1.48
11	삼성증권	312,500	2	1.25
12	DB금융투자	300,000	6	1.20
13	부국증권	294,376	4	1.17
14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95
15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88
16	하이투자증권	217,500	2	0.87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84
18	메리츠종금증권	79,315	3	0.32
19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7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64,376	3	0.26
21	IBK투자증권	61,876	3	0.25
22	유안타증권	59,376	3	0.24
23	대신증권	40,000	1	0.16
24	KTB투자증권	30,000	1	0.12
총합계		25,059,410	214	100.00

2020년 1분기 A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NH투자증권	2,852,500	10.80	18.30	2,962,382
2	KB증권	2,764,276	10.46	15.87	2,633,558
3	SK증권	2,706,500	10.24	18.57	3,127,590
4	한국투자증권	2,667,500	10.10	14.70	2,506,627
5	미래에셋대우	1,688,895	6.39	14.99	1,572,529
6	이베스트투자증권	1,555,000	5.89	12.30	2,053,868
7	한화투자증권	1,186,493	4.49	13.93	1,185,717
8	신한금융투자	1,110,000	4.20	15.87	1,047,398
9	교보증권	975,000	3.69	10.15	882,798
10	현대차증권	919,376	3.48	18.44	896,711
11	키움증권	750,000	2.84	15.24	639,121
12	한양증권	675,000	2.55	11.27	766,255
13	부국증권	629,376	2.38	9.05	600,905
14	BNK투자증권	610,000	2.31	6.78	411,907
15	하이투자증권	605,000	2.29	14.63	535,817
16	삼성증권	492,500	1.86	18.19	472,656
17	하나금융투자	440,000	1.67	18.35	440,135
18	유안타증권	439,376	1.66	11.22	426,665
19	DB금융투자	400,000	1.51	9.99	399,733
20	IBK투자증권	389,376	1.47	19.34	377,838
21	신영증권	355,000	1.34	9.10	311,008
22	유진투자증권	340,000	1.29	8.10	318,377
23	메리츠종금증권	332,866	1.26	6.90	232,793
2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4,376	1.15	14.96	468,196
25	KTB투자증권	290,000	1.10	6.64	213,526
26	한국산업은행	261,000	0.99	10.19	288,434
27	케이프투자증권	170,000	0.64	8.32	164,438
28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53	8.09	133,847
28	대신증권	140,000	0.53	23.14	162,670
30	홍국증권	100,000	0.38	7.10	81,116
31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6	11.29	58,407
32	DS투자증권	30,000	0.11	8.00	21,373
33	케이알투자증권	20,000	0.08	12.50	15,562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4	8.00	9,455
총합계		26,419,410	100.00	14.67	26,419,410

2020년 1분기 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716,157	72	25.01
2	NH투자증권	6,763,548	62	21.92
3	한국투자증권	4,283,881	37	13.88
4	미래에셋대우	2,921,487	24	9.47
5	SK증권	2,459,833	10	7.97
6	교보증권	1,350,000	9	4.38
7	키움증권	975,714	7	3.16
8	신한금융투자	759,667	7	2.46
9	한양증권	628,000	10	2.04
10	현대차증권	449,376	4	1.46
11	삼성증권	312,500	2	1.01
12	DB금융투자	300,000	6	0.97
13	부국증권	294,376	4	0.95
14	하이투자증권	257,500	3	0.83
15	한화투자증권	237,500	2	0.77
16	유진투자증권	220,000	3	0.71
17	BNK투자증권	210,000	1	0.68
18	IBK투자증권	161,876	4	0.52
19	유안타증권	145,090	4	0.47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96,376	4	0.31
21	한국산업은행	85,714	1	0.28
22	메리츠종금증권	79,315	3	0.26
23	이베스트투자증권	67,500	2	0.22
24	대신증권	40,000	1	0.13
25	KTB투자증권	30,000	1	0.10
26	DS투자증권	10,000	1	0.03
총합계		30,855,410	284	100.00

2020년 1분기 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3,873,276	12.01	18.46	3,634,521
2	NH투자증권	3,584,500	11.11	20.22	3,807,935
3	한국투자증권	3,313,500	10.27	17.10	3,177,045
4	SK증권	2,973,500	9.22	18.91	2,939,068
5	미래에셋대우	2,143,895	6.65	18.62	1,988,872
6	이베스트투자증권	1,861,000	5.77	12.85	2,279,312
7	한화투자증권	1,454,493	4.51	15.87	1,481,016
8	신한금융투자	1,220,000	3.78	17.46	1,072,526
9	교보증권	1,045,000	3.24	12.35	938,101
10	키움증권	1,035,000	3.21	22.67	1,116,283
11	현대차증권	949,376	2.94	18.44	901,165
12	한양증권	919,000	2.85	11.63	979,644
13	부국증권	839,376	2.60	15.26	937,257
14	하이투자증권	775,000	2.40	19.67	883,115
15	BNK투자증권	620,000	1.92	6.83	383,007
16	IBK투자증권	609,376	1.89	19.25	615,100
17	유안타증권	554,376	1.72	22.55	650,670
18	DB금융투자	500,000	1.55	11.48	496,230
19	삼성증권	492,500	1.53	18.19	462,157
20	하나금융투자	460,000	1.43	18.69	466,192
21	신영증권	410,000	1.27	13.79	332,059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404,376	1.25	16.38	638,578
23	한국산업은행	381,000	1.18	33.11	476,674
24	유진투자증권	370,000	1.15	9.33	332,123
25	메리츠종금증권	357,866	1.11	7.07	230,222
26	KTB투자증권	320,000	0.99	7.58	243,944
27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0.56	8.69	162,548
28	대신증권	172,000	0.53	30.90	234,997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70,000	0.53	9.13	163,529
30	홍국증권	100,000	0.31	7.10	72,489
31	카카오페이증권	70,000	0.22	11.29	54,494
32	DS투자증권	47,000	0.15	11.02	48,819
33	케이알투자증권	40,000	0.12	13.95	47,288
34	우리종합금융	10,000	0.03	8.00	8,427
총합계		32,255,410	100.00	17.17	32,255,410

2020년 1분기 BBB급 이하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39,918	10	49.32
2	한국투자증권	120,000	3	17.41
3	키움증권	102,167	3	14.82
4	유안타증권	40,751	3	5.91
5	DB금융투자	24,667	1	3.58
6	KTB투자증권	20,000	1	2.90
7	NH투자증권	19,000	1	2.76
7	신영증권	19,000	1	2.76
9	IBK투자증권	751	2	0.11
10	현대차증권	751	2	0.11
11	메리츠종금증권	751	2	0.11
11	부국증권	751	2	0.11
1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51	2	0.11
총합계		689,259	33	100.00

2020년 1분기 BBB급 이하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평균수수료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304,100	44.12	20.46	328,279
2	키움증권	100,200	14.54	19.00	92,198
3	KTB투자증권	60,000	8.71	11.00	51,975
4	한국투자증권	48,000	6.96	15.83	41,926
5	DB금융투자	40,700	5.90	20.00	38,048
6	NH투자증권	32,500	4.72	22.15	33,654
7	유안타증권	28,304	4.11	19.79	26,176
8	신영증권	16,000	2.32	25.00	18,697
8	하이투자증권	16,000	2.32	20.00	14,958
10	BNK투자증권	10,000	1.45	10.00	7,875
10	한화투자증권	10,000	1.45	20.00	9,348
12	미래에셋대우	8,000	1.16	20.00	7,479
13	하나금융투자	6,500	0.94	20.00	10,238
14	삼성증권	4,000	0.58	10.00	3,150
15	메리츠종금증권	1,058	0.15	0.00	0
16	부국증권	1,021	0.15	0.00	0
1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984	0.14	0.00	0
18	IBK투자증권	967	0.14	0.00	0
19	현대차증권	927	0.13	0.00	0
총합계		689,259	100.00	18.85	684,000

[참고] 2020년 1분기 주택금융공사 MBS 주관 및 인수 순위				
순위	House명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1	IBK투자증권	8,351,100	50.29	7
2	한국투자증권	2,034,500	12.25	3
3	BNK투자증권	1,575,200	9.49	1
4	DB금융투자	937,000	5.64	4
5	교보증권	932,500	5.62	4
6	부국증권	717,000	4.32	3
7	SK증권	690,000	4.16	3
8	KB증권	677,000	4.08	3
9	메리츠종금증권	247,000	1.49	1
10	하이투자증권	220,000	1.32	1
11	키움증권	210,000	1.26	1
12	KHFC 자체인수	14,700	0.09	8
총합계		16,606,000	100.00	39

* ㈜ 후순위채권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인수
* MBS의 경우 주관과 인수 실적에 차이가 없음

[참고] 2020년 1분기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내역					
발행일	채권명	발행금액 (백만원)	만기일	발행금리 (%)	옵션
2020-01-10	KHFC MBS 2020-01 1-1	157,900	2021-01-10	1.438	
2020-01-10	KHFC MBS 2020-01 1-2	180,000	2022-01-10	1.472	
2020-01-10	KHFC MBS 2020-01 1-3	210,000	2023-01-10	1.507	
2020-01-10	KHFC MBS 2020-01 1-4	440,000	2025-01-10	1.661	CALL
2020-01-10	KHFC MBS 2020-01 1-5	240,000	2027-01-10	1.741	CALL
2020-01-10	KHFC MBS 2020-01 1-6	180,000	2030-01-10	1.898	CALL
2020-01-10	KHFC MBS 2020-01 1-7	100,000	2035-01-10	1.968	CALL
2020-01-10	KHFC MBS 2020-01 1-8	30,000	2040-01-10	1.903	CALL
2020-01-10	KHFC MBS 2020-01 2-1	800	2041-01-10	13.161	
2020-01-17	KHFC MBS 2020-02 1-1	202,400	2021-01-17	1.483	
2020-01-17	KHFC MBS 2020-02 1-2	230,000	2022-01-17	1.519	
2020-01-17	KHFC MBS 2020-02 1-3	290,000	2023-01-17	1.575	
2020-01-17	KHFC MBS 2020-02 1-4	660,000	2025-01-17	1.769	CALL
2020-01-17	KHFC MBS 2020-02 1-5	370,000	2027-01-17	1.849	CALL
2020-01-17	KHFC MBS 2020-02 1-6	270,000	2030-01-17	1.964	CALL
2020-01-17	KHFC MBS 2020-02 1-7	130,000	2035-01-17	2.004	CALL
2020-01-17	KHFC MBS 2020-02 1-8	40,000	2040-01-17	1.957	CALL
2020-01-17	KHFC MBS 2020-02 2-1	4,200	2041-01-17	13.245	
2020-01-21	KHFC MBS 2020-03 1-1	199,700	2021-01-21	1.505	
2020-01-21	KHFC MBS 2020-03 1-2	210,000	2022-01-21	1.584	
2020-01-21	KHFC MBS 2020-03 1-3	230,000	2023-01-21	1.632	
2020-01-21	KHFC MBS 2020-03 1-4	650,000	2025-01-21	1.908	CALL
2020-01-21	KHFC MBS 2020-03 1-5	240,000	2027-01-21	1.858	CALL
2020-01-21	KHFC MBS 2020-03 1-6	140,000	2030-01-21	1.963	CALL
2020-01-21	KHFC MBS 2020-03 1-7	80,000	2035-01-21	2.003	CALL
2020-01-21	KHFC MBS 2020-03 1-8	30,000	2040-01-21	1.949	CALL
2020-01-21	KHFC MBS 2020-03 2-1	500	2041-01-21	13.238	
2020-02-04	KHFC MBS 2020-04 1-1	336,600	2021-02-04	1.435	
2020-02-04	KHFC MBS 2020-04 1-2	370,000	2022-02-04	1.476	
2020-02-04	KHFC MBS 2020-04 1-3	460,000	2023-02-04	1.502	
2020-02-04	KHFC MBS 2020-04 1-4	970,000	2025-02-04	1.502	CALL
2020-02-04	KHFC MBS 2020-04 1-5	550,000	2027-02-04	1.732	CALL
2020-02-04	KHFC MBS 2020-04 1-6	400,000	2030-02-04	1.804	CALL
2020-02-04	KHFC MBS 2020-04 1-7	210,000	2035-02-04	1.844	CALL
2020-02-04	KHFC MBS 2020-04 1-8	60,000	2040-02-04	1.838	CALL
2020-02-04	KHFC MBS 2020-04 2-1	2,500	2041-02-04	13.129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1-1	310,400	2021-02-14	1.379	
2020-02-14	KHFC MBS 2020-05 1-2	340,000	2022-02-14	1.42	
2020-02-14	KHFC MBS 2020-05 1-3	410,000	2023-02-14	1.473	
2020-02-14	KHFC MBS 2020-05 1-4	850,000	2025-02-14	1.671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1-5	480,000	2027-02-14	1.741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1-6	350,000	2030-02-14	1.845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1-7	200,000	2035-02-14	1.885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1-8	50,000	2040-02-14	1.841	CALL
2020-02-14	KHFC MBS 2020-05 2-1	1,300	2041-02-14	13.143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1-1	150,000	2021-02-21	1.331	
2020-02-21	KHFC MBS 2020-06 1-2	150,000	2022-02-21	1.381	
2020-02-21	KHFC MBS 2020-06 1-3	150,000	2023-02-21	1.467	
2020-02-21	KHFC MBS 2020-06 1-4	490,000	2025-02-21	1.602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1-5	130,000	2027-02-21	1.462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1-6	90,000	2030-02-21	1.755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1-7	60,000	2035-02-21	1.805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1-8	30,000	2040-02-21	1.734	CALL
2020-02-21	KHFC MBS 2020-06 2-1	1,300	2041-02-21	13.126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1-1	233,800	2021-03-06	1.238	
2020-03-06	KHFC MBS 2020-07 1-2	260,000	2022-03-06	1.252	
2020-03-06	KHFC MBS 2020-07 1-3	310,000	2023-03-06	1.273	
2020-03-06	KHFC MBS 2020-07 1-4	640,000	2025-03-06	1.42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1-5	370,000	2027-03-06	1.5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1-6	270,000	2030-03-06	1.58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1-7	140,000	2035-03-06	1.58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1-8	40,000	2040-03-06	1.553	CALL
2020-03-06	KHFC MBS 2020-07 2-1	2,600	2041-03-06	12.963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1-1	120,500	2021-03-13	1.17	
2020-03-13	KHFC MBS 2020-08 1-2	140,000	2022-03-13	1.229	
2020-03-13	KHFC MBS 2020-08 1-3	150,000	2023-03-13	1.25	
2020-03-13	KHFC MBS 2020-08 1-4	370,000	2025-03-13	1.457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1-5	190,000	2027-03-13	1.457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1-6	150,000	2030-03-13	1.548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1-7	80,000	2035-03-13	1.548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1-8	20,000	2040-03-13	1.625	CALL
2020-03-13	KHFC MBS 2020-08 2-1	1,500	2041-03-13	12.874	CALL

[참고] 2020년 1분기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현대자동차	3,410,000	23	11.15
2	SK	2,560,000	6	8.37
3	KB금융	2,100,000	11	6.87
4	신한금융	1,990,000	19	6.51
5	LG	1,910,000	5	6.25
6	하나금융	1,590,000	9	5.20
7	미래에셋	1,410,000	5	4.61
8	롯데	1,390,000	13	4.55
9	삼성	1,040,000	12	3.40
10	GS	880,000	3	2.88
11	메리츠금융	774,000	7	2.53
12	우리금융	700,000	5	2.29
13	S-OIL	680,000	1	2.22
14	BNK금융	640,000	10	2.09
15	아주산업	610,000	4	1.99
16	중소기업은행	560,000	4	1.83
16	NH농협금융	560,000	4	1.83
18	한화	558,000	4	1.82
19	현대중공업	500,000	1	1.64
19	삼천리	500,000	1	1.64
21	산은금융	490,000	5	1.60
22	JB금융	460,000	5	1.50
23	DGB금융	430,000	4	1.41
24	여천NCC	400,000	1	1.31
25	한국투자금융	350,000	1	1.14
26	효성	327,000	6	1.07
27	한국테크놀로지	300,000	1	0.98
28	한국전력공사	250,000	2	0.82
29	한국캐피탈	223,000	8	0.73
30	한국토지신탁	200,000	1	0.65
30	한국증권금융	200,000	1	0.65
32	애큐온캐피탈	183,000	2	0.60
33	LS	170,000	1	0.56
34	한진	160,000	1	0.52
34	대상	160,000	1	0.52
36	두산	149,000	2	0.49
37	삼양	140,000	1	0.46
37	태영	140,000	1	0.46
37	RCI Banque	140,000	2	0.46
40	한국석유공사	120,000	1	0.39
41	대신	105,000	1	0.34
42	아프로서비스	100,000	3	0.33
42	메르세데스벤츠	100,000	1	0.33
42	신세계	100,000	1	0.33
42	대림	100,000	1	0.33
42	한국지역난방공사	100,000	1	0.33
47	한신공영	94,000	1	0.31
48	다우기술	89,000	2	0.29
49	동원	80,000	1	0.26
50	CJ	70,000	1	0.23
51	대성	60,000	1	0.20
52	에이제이네트웍스	57,000	1	0.19
53	포스코	50,000	1	0.16
53	한국콜마홀딩스	50,000	1	0.16
55	서울신문사	40,000	1	0.13
56	오릭스캐피탈코리아	30,000	1	0.10
총합계		30,579,000	213	100.00

[참고] 2020년 1분기 기업별 회사채 발행현황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SK하이닉스	1,060,000	1	3.47
2	미래에셋대우	1,000,000	2	3.27
3	LG화학	900,000	1	2.94
4	하나캐피탈	860,000	6	2.81
5	신한캐피탈	850,000	9	2.78
6	신한카드	780,000	8	2.55
7	KB캐피탈	750,000	5	2.45
8	현대카드	720,000	8	2.35
9	KB국민카드	700,000	4	2.29
10	S-OIL	680,000	1	2.22
11	현대커머셜	650,000	5	2.13
11	KB금융지주	650,000	2	2.13
13	현대캐피탈	640,000	6	2.09
14	아주캐피탈	610,000	4	1.99
15	롯데캐피탈	590,000	6	1.93
16	NH농협캐피탈	560,000	4	1.83
16	IBK캐피탈	560,000	4	1.83
18	현대제철	550,000	1	1.80
19	삼성증권	540,000	1	1.77
20	메리츠캐피탈	510,000	5	1.67
21	에스파워	500,000	1	1.64
21	삼성카드	500,000	11	1.64
21	하나금융투자	500,000	1	1.64
21	현대오일뱅크	500,000	1	1.64
25	산은캐피탈	490,000	5	1.60
25	BNK캐피탈	490,000	9	1.60
27	JB우리캐피탈	460,000	5	1.50
28	SK텔레콤	420,000	1	1.37
29	미래에셋캐피탈	410,000	3	1.34
30	호텔롯데	400,000	1	1.31
30	GS칼텍스	400,000	1	1.31
30	여천NCC	400,000	1	1.31
30	LG유플러스	400,000	1	1.31
30	우리금융지주	400,000	1	1.31
35	SK E&S	380,000	1	1.24
36	신한금융지주	360,000	2	1.18
37	한국투자금융지주	350,000	1	1.14
38	SK	330,000	1	1.08
38	DGB캐피탈	330,000	3	1.08
40	우리카드	300,000	4	0.98
4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00,000	1	0.98
40	현대건설	300,000	1	0.98
40	LG전자	300,000	1	0.98
40	현대글로비스	300,000	1	0.98
45	롯데카드	290,000	5	0.95
46	한화솔루션	280,000	1	0.92
47	한국중부발전	250,000	2	0.82
47	SK가스	250,000	1	0.82
47	현대위아	250,000	1	0.82
47	지에스이피에스	250,000	1	0.82
51	지에스이앤알	230,000	1	0.75
52	한국캐피탈	223,000	8	0.73
53	하나금융지주	200,000	1	0.65
53	LG헬로비전	200,000	1	0.65
53	한국토지신탁	200,000	1	0.65
53	한국증권금융	200,000	1	0.65
57	효성화학	184,000	1	0.60
58	애큐온캐피탈	183,000	2	0.60
59	LS전선	170,000	1	0.56
60	대한항공	160,000	1	0.52
60	대상	160,000	1	0.52
62	한화	150,000	1	0.49
62	메리츠화재	150,000	1	0.49
62	BNK금융지주	150,000	1	0.49
65	효성캐피탈	143,000	5	0.47
66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40,000	2	0.46
66	태영건설	140,000	1	0.46
66	삼양사	140,000	1	0.46
69	오일허브코리아여수	120,000	1	0.39
69	SK매직	120,000	1	0.39
71	메리츠종금증권	114,000	1	0.37
72	팜한농	110,000	1	0.36
72	롯데제과	110,000	1	0.36
74	대신증권	105,000	1	0.34
75	오케이캐피탈	100,000	3	0.33
75	한국지역난방공사	100,000	1	0.33
75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00,000	1	0.33
75	신세계푸드	100,000	1	0.33
75	대림코퍼레이션	100,000	1	0.33
75	DGB금융지주	100,000	1	0.33
81	한신공영	94,000	1	0.31
82	한화건설	93,000	1	0.30

83	키움캐피탈	89,000	2	0.29
84	동원산업	80,000	1	0.26
85	두산	75,000	1	0.25
86	두산인프라코어	74,000	1	0.24
87	CJ프레시웨이	70,000	1	0.23
88	대성홀딩스	60,000	1	0.20
89	에이제이네트웍스	57,000	1	0.19
90	포스파워	50,000	1	0.16
90	에이치케이이노엔	50,000	1	0.16
92	서울신문사	40,000	1	0.13
93	한화호텔앤드리조트	35,000	1	0.11
94	오릭스캐피탈코리아	30,000	1	0.10
94	하나카드	30,000	1	0.10
총합계		30,579,000	213	100.00

1st quarter of 2020
thebell League Table

Korean Paper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공모/사모 포함, 구조화채권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액이나 표시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커버드본드를 포함하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한다.
- 주관실적은 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하며 joint manager 등 여타 자문사에게는 배분하지 않는다.
- 주관실적과 수수료실적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며, 非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납입일의 USD 대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Overview

1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빅딜이 쏟아지던 한국물(Korean Paper) 시장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음. 2020년 1월 포스코 딜을 시작으로 싹튼 호황 기대감은 2월 중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았음. 한국광물공사과 한국석유공사 등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딜 연기. 사실상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물 시장은 폐점에 돌입.

1분기 딜이 줄줄이 밀리자 연초 대형 딜을 섭렵한 하우스 중심으로 실적 재편. 10억달러 이상의 빅딜 4건 중 3건을 주관한 BNP파리바는 나홀로 8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려 산뜻한 출발을 알렸음.

금융기관 딜에서 두각을 드러낸 JP모간이 뒤를 이었음. 한국물 시장 내 독보적 지위를 구축했던 HSBC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이 이들을 바짝 쫓아 2분기 접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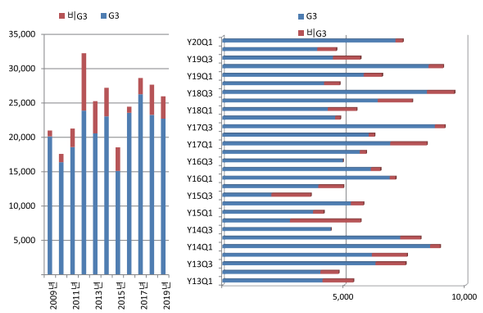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분위기 반전…빅딜 효과로 상쇄, 유로화 비중 증가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한국물(공모 기준) 발행 규모는 총 74억 841만달러. 전년 동기(65억달러) 대비 12% 증가한 수치. 코로나19 사태로 2월 중순 이후 발행량이 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

코로나19 효과를 상쇄한 건 1~2월 쏟아진 빅딜 덕분. 1월 포스코(9억 4000만달러, 5억유로)를 시작으로 주택금융공사(10억유로), 현대캐피탈아메리카(22억달러), KD산업은행(15억달러) 등은 대규모 조달에 나섰음. 현대캐피탈(3억스위스프랑)과 한국남동발전(3억달러), 한국수출입은행(5억달러)도 발행에 나서 시장을 뒷받침.

2020년 1분기에는 유로화채권 성장세가 두드러졌음. 1분기 유로화 발행 규모는 15억유로(미화 환산 기준 16억달러)로, 전체 발행량의 22% 차지. 분기 기준 유로화

한국계 공모채권 해외 발행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20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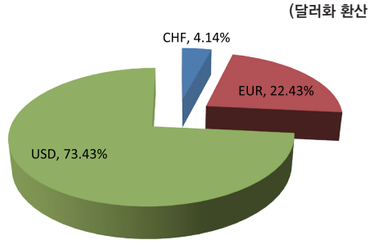


채권 비중이 20%를 넘어선 건 2013년 2분기(40%) 이후 처음.

유로화채권은 유럽 내 저금리 기조 등에 힘입어 새 조달 통화로 각광. 마이너스 금리 효과 등으로 금리 기준점이 낮은 데다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채권과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등 한국물 이슈어들이 발을 넓히고 있는 유형에 대한 채권 투자 역시 활발.

실제로 2월(납입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서 마이너스 금리 달성. 쿠폰(Coupon) 금리를 0.01%로 설정하는 대신 할증 발행하는

2020년 1분기 해외채(공모) 발행 통화 비중
(달러화 환산 기준)



형태. 이에 따른 실질 발행금리는 -0.02%. 아시아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유로화채권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

◇'빅딜 섭렵' BNP파리바, 유럽계 효과 톡톡…상반기 접전 예고

유로화채권 비중 증가에 힘입어 2020년 1분기에는 유럽계 하우스의 약진이 두드러졌음. BNP파리바는 2020년 1분기 8억 2552만달러의 주관 실적을 올려 선두. BNP파리바는 포스코(달러 · 유로화 동시 발행)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로화 딜로만 5억 7552만달러의 실적을 올렸음. 이어 KDB산업은행(15억달러)의 달러 딜에 참여해 실적을 견고히 다졌음.

미국계 하우스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JP모간의 기세 역시 거셌음. JP모간은 한국수출입은행(5억달러)과 현대캐피탈아메리카(22억달러) 달러채 두 건의 딜로 7억 8333만달러의 주관 실적을 쌓아올렸음. 특히 현대캐피탈아메리카가 사상 최대 규모 조달에 나선 데 이어 흥행에 힘입어 2억달러(3년물)를 리오픈(증액발행)한 점이 주효. JP모간은 한국수출입은행(5억달러) 발행에도 참여해 1분기 금융기관 달러채 딜 석권.

전통 강자로 꼽혔던 HSBC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BNP파리바와 JP모간의 뒤를 이었음. HSBC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의 주관 실적은 각각 7억 6603만달러, 6억 4937만달러. HSBC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1분기 딜 연기를 결정한 대부분의 딜에 주관사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실적 감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

2020년 1분기 국내기업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2019년 순위
1	BNP파리바	825,520,000	3	11.14%	3
2	JP모간	783,333,333	4	10.57%	10
3	HSBC	766,036,667	4	10.34%	2
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649,370,000	3	8.77%	1
5	BOA메릴린치	466,036,667	2	6.29%	6
6	MUFG	366,666,667	2	4.95%	31
6	SMBC닛코증권	366,666,667	2	4.95%	24
6	TD증권	366,666,667	2	4.95%	-
6	로이즈은행	366,666,667	2	4.95%	24
10	크레디트스위스	306,968,178	1	4.14%	11
11	스탠다드차타드	299,370,000	1	4.04%	5
12	DBS	276,150,000	1	3.73%	28
12	ING	276,150,000	1	3.73%	18
12	쏘시에떼제너랄	276,150,000	1	3.73%	8
15	KDB아시아	250,000,000	1	3.37%	21
15	UBS	250,000,000	1	3.37%	7
15	골드만삭스	250,000,000	1	3.37%	21
18	모간스탠리	166,666,667	1	2.25%	13
19	크레디아그리콜	100,000,000	1	1.35%	4
총합계		7,408,418,178	34	100.00%	-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0년 1분기 국내기업 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2019년 순위
1	BNP파리바	825,520,000	3	11.62%	4
2	JP모간	783,333,333	4	11.03%	9
3	HSBC	766,036,667	4	10.79%	2
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649,370,000	3	9.14%	1
5	BOA메릴린치	466,036,667	2	6.56%	6
6	MUFG	366,666,667	2	5.16%	-
6	SMBC닛코증권	366,666,667	2	5.16%	22
6	TD증권	366,666,667	2	5.16%	-
6	로이즈은행	366,666,667	2	5.16%	22
10	스탠다드차타드	299,370,000	1	4.22%	5
11	DBS	276,150,000	1	3.89%	26
11	ING	276,150,000	1	3.89%	17
11	쏘시에떼제너랄	276,150,000	1	3.89%	7
14	KDB아시아	250,000,000	1	3.52%	19
14	UBS	250,000,000	1	3.52%	10
14	골드만삭스	250,000,000	1	3.52%	19
17	모간스탠리	166,666,667	1	2.35%	15
18	크레디아그리콜	100,000,000	1	1.41%	3
총합계		7,101,450,000	33	100.00%	-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0년 1분기 국내기업 非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2019년 순위
1	크레디트스위스	306,968,178	1	100.00%	3
총합계		306,968,178	1	100.00%	-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참고] 2020년 1분기 한국물(공모) 딜리스트

발행일자 (납입일)	발행사	유형	발행 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북러너)
2020-01-17	포스코	글로벌본드	USD	940,000,000	940,000,000	BOA메릴린치, BNP파리바, 씨티증권, HSBC, SC
			EUR	500,000,000	556,850,000	
2020-02-11	현대캐피탈	스위스프랑채권	CHF	300,000,000	306,968,177.63	CS
2020-02-03	한국남동발전	유로본드	USD	300,000,000	300,000,000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HSBC
2020-02-05	주택금융공사	글로벌 커버드본드	EUR	1,000,000,000	1,104,600,000	BNP파리바, DBS, ING, SG
2020-02-12	수출입은행	글로벌본드	USD	500,000,000	500,000,000	BOA메릴린치, JP모간, 모건스탠리
2020-02-10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글로벌본드	USD	2,000,000,000	2,000,000,000	MUFG, HSBC, JP모간, 로이즈은행, SMBC닛코증권, TD증권
		글로벌본드(리오픈)		200,000,000	200,000,000	
2020-02-18	산업은행	글로벌본드	USD	1,500,000,000	1,5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KDB아시아, UBS

[참고] 2020년 1분기 비G3 딜리스트

발행일자 (납입일)	발행사	발행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
2020-02-11	현대캐피탈	CHF	300,000,000	306,968,177.63	CS

[참고] 2020년 1분기 ESG 채권 딜리스트

납입일자	발행사	유형	발행통화	만기	발행규모	주관사(북러너)
2020-01-17	포스코	지속가능채권	EUR	500,000,000	556,850,000	BOA메릴린치, BNP파리바, 씨티증권, HSBC, SC
2020-02-03	한국남동발전	그린본드	USD	300,000,000	300,000,000	씨티증권, CA, HSBC
2020-02-05	주택금융공사	소셜 커버드본드	EUR	1,000,000,000	1,104,600,000	BNP파리바, DBS, ING, SG

1st quarter of 2020
thebell League Table

Mergers & Acquisitions

Deal list 집계기준

- 2개 이상 거래주체(법인, 개인 등)의 경영 참여 및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자원개발 분야 포함)를 집계대상으로 삼는다.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자산 본래의 용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경영 참여와는 관련이 없는 주식거래(IPO 및 유상증자 포함) 혹은 채권거래(CB · BW포함) 등은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참여의 조건은 경영권 지분 인수 및 이사회 참여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 참여라고 인정될 시에는 기업 인수에 포함한다.
- 거래대상 또는 매각주체(합병주체) 또는 인수주체(피합병주체) 중 1곳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거래만을 집계한다. 거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크로스보더 거래로 분류한다.
- 거래 성격에 따라 '기업인수'(Corporate Acquisition), '기업합병 · 분할'(Corporate Merger & Consolidation, Split),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으로 나눠 집계한다.
-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은 경영 참여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SOC, 부동산, 건물 · 토지 등의 거래를 의미한다.
  단 골프장, 호텔 등 거래 대상 부동산의 본래적 용법을 계속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 거래 형태가 아니라도 M&A 거래로 인정한다.
- 자원개발권 또는 수익권 향유를 계속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지분 거래는 원칙적으로 M&A 거래로 인정한다.
- '거래시기'에 따라 각각의 딜을 '공표거래'(Announced Deal)와 '완료거래'(Completed Deal)로 분류한다.
  - '공표거래'는 잔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공표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공표일자'란 거래대상자가 확정된 시기,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이나 본계약 체결일 등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이나 합병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일을 의미한다.
  - '완료거래'는 공표일과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완료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완료일자'란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 합병거래의 경우 합병기일을 의미한다.
- 거래금액은 원화로 집계하며 집계되는 거래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거래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환율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 주식회사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된 주식 지분의 가치를 의미한다.
  -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양수의 댓가로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지분과 부채가 함께 거래된 경우 부채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내용에 부채 상환을 예정한 경우에는 부채도 거래금액에 포함한다.
  - 기업합병 거래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 기업분할 거래의 경우 분할되어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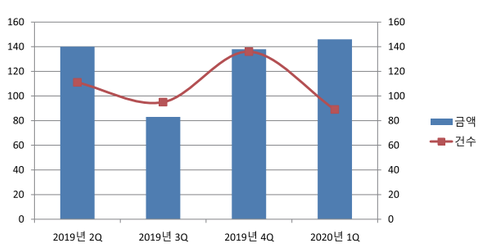
- 금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구분하고 '공표거래'와 '완료거래'를 분리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다.
- 금융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금액'을 실적집계 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건수'와 '금액'을 동등한 비율로 실적집계에 반영한다.
- 계열사나 관계사간 M&A 거래는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회사가 M&A 거래 당사자와 계열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 경우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계법인이 거래 일방의 금융자문과 회계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회계자문을 금융자문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회계자문 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수의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자문을 맡았을 경우, 전체 거래금액(또는 거래건수)을 자문회사 수로 나눈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문회사별 업무 관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을 통해 실적금액 반영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자문계약을 맺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정해 MOU 이상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거래의 진실성과 자문역할에 대한 평가는 자문사를 고용한 의뢰기업(의뢰인)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
- 자문계약 관계가 실재하더라도 의뢰기업(의뢰인)이 자문역할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표거래'가 집계기간내 파기될 경우 시기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내역은 각주 등으로 별도 표기한다.
- 분기별 집계실적은 반기 및 연간실적을 집계하면서 거래성사여부,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재확인해 이를 최종 반영한다.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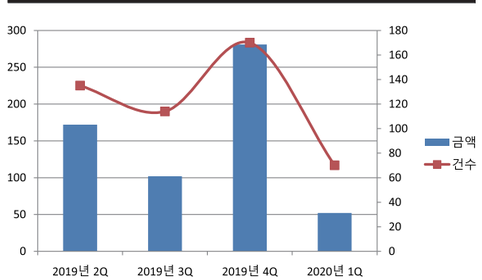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완료 기준으론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발표기준으론 대폭 줄어든 모습. 코로나19 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계약 체결 등이 미뤄지면서 발표 기준 딜의 규모가 쪼그라든 것으로 보임.

PEF 거래는 여전히 기업관련 거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시장의 한축을 차지했음. 드라이파우더가 많은 PEF들은 적극적으로 매물을 탐색하며 M&A 시장의 주요 거래주체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임. 조인트벤처(JV)나 합병, 부동산 등의 거래를 모두 포함한 1분기 시장 규모는 31조623억원(117건)이었음.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Completed)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Announced)



[총론] 인수합병 딜에도 코로나19 영향…2분기 보릿고개 예고

31일 더벨이 집계한 1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완료 기준 기업 인수 · 매각 M&A 거래 규모는 총 14조5716억원, 건수로는 89건을 나타냈음.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

발표 기준으로는 올 1분기중 5조2330억원, 70건의 거래가 일어남. 지난 2019년 1분기에는 10조6000억원 규모였으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이는 2018년 7조3000억원, 2017년 8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대폭 줄어든 모습. 1분기 들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금융시장 딜이 연기되면서 신규 M&A 계약 체결 규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그나마 SK네트웍스의 직영주유소 매각(1조3300억원), 한앤컴퍼니의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분 인수(3825억원),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카카오M 투자(2100억원), 현대캐피탈의 식스트SE(2000억원) 투자 등은 계약이 1분기 중 이뤄지면서 자문사들도 실적을 쌓을 수 있었음.

PEF 관여 딜 중 1분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월 완료된 맥쿼리PE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매각측 역시 MBK파트너스로 PE 간 세컨더리 거래였던 이 딜은 2조5000억원의 거래규모를 보이며 올 1분기를 대표하는 대형 거래 중 하나로 남게 됨. SKC의 KCFT 거래 또한 글로벌 PEF 중 하나인 KKR이 매각측인 PEF 관련 거래. 전체 거래 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으며 지난 1월 최종 잔금납입까지 완료함.

지난 2월 완료된 넷마블의 코웨이 인수는 비(非) PEF 거래 중에 올 1분기를 대표하는 딜. 1조7400억원으로 총 거래 규모도 1분기 중 상위에 랭크됐음. 웅진그룹은 지난해 MBK파트너스로부터 코웨이를 인수했으나 3개월만에 재매각에 나서며 그룹의 유동성 리스크를 타개하려 했음. 난항을 거듭하다 본입찰 시점에 깜짝 후보로 등장한 넷마블은 웅진그룹과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는데 지난해 말 극적으로 SPA를 체결, 올해 1분기 거래를 마무리짓게 됐음.

2020년 1분기 상위 10개 거래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매각자	인수자	거래금액	성격
1	대성산업가스(지분 100%)	MBK파트너스	맥쿼리PE	2,500,000	
2	코웨이(지분 25.08%)	웅진씽크빅	넷마블	1,740,000	
3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지분100%)	KKR & Co. L.P.	SKC	1,200,000	
4	오렌지라이프(주식 40.85%)	개인주주	신한금융지주	950,000	
5	네이버파이낸셜(지분 30%)	네이버	미래에셋대우	799,285	
6	태림포장(지분60%)/태림페이퍼 (지분100%)	IMM프라이빗에쿼티	세아상역	730,000	
7	Kraton Corporation (Cariflex 사업부)	Kraton	대림산업	618,200	크로스보더
8	SKC코오롱PI(주식 54.06%)	SKC, 코오롱	글랜우드 PE	608,000	
9	DuPont(SiC Wafer 영업양수100%)	DuPont	SK실트론	536,580	크로스보더
10	SKC(화학사업부 구주 49%)	SKC	외국 기업	535,800	

(완료 기준)

지난 3월 완료된 대림산업의 미국 크레이튼의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는 6180억원의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SI 대표 거래. 대림산업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첫 아웃바운드 딜을 시도, 시장의 눈길을 끌었음.

[금융자문] 모건스탠리 초반 러시…2위 CS 멀찌감치 따돌려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2020년 1분기 완료(잔금납입) 기준 6조286억원 규모의 M&A 금융자문 실적을 기록. 금액 기준 점유율은 35.66%로 압도적 1위. 2위를 기록한 크레디트스위스(CS)를 17.48%p 차로 따돌렸음. 모건스탠리는 △MBK파트너스의 대성산업가스 매각(2조5000억원)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KCFT 매각(1조2000억원) 등 랜드마크 딜을 담당하며 하우스의 저력을 과시.

2위를 차지한 CS는 실적 건수로는 모간스탠리 대비 한 건 더 많았지만 거래규모에서 크게 밀리며 2위에 머물렀음. CS의 2020년 1분기 실적 모두 SK그룹 계열사 딜이었다는 점이 주목됨. CS는 △SKC의 KCFT 인수 △SK실트론의 미국 듀폰(Dupont) SiC 웨이퍼 영업양수 △SKC의 SKC코오롱PI 지분매각 △SKC 화학사업부 구주(49%) 매각 등에서 SK그룹 계열사 측 자문을 맡음. CS는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매각(1조3321억원), △SK E&S의 호주 천연가스 · LNG 업체 'Darwin LNG PTY LTD' 지분 인수(3452억원) 등 완료되지 않은 거래에서도 자문을 수행함.

3위는 라자드(Lazard)가 차지. 라자드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이 MBK파트너스로부터 대성산업가스를 인수할 때 인수차 측에 금융자문을 제공했음. 라자드가 더벨 리그테이블 M&A 금융자문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임.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Harman)을 인수한 때, 라자드는 JP모간과 함께 하만 측 자문을 맡았음. 라자드는 이 한 건으로 2017년 당시 더벨 리그테이블 M&A 금융자문 2위에 올랐음.

국내 자문사 가운데는 한국투자증권이 눈에 띔. 토종 하우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기록했음. 한국투자증권은 웅진이 코웨이 지분(25.08%) 매각에 나섰을 때, 매도자 측에 금융자문을 제공했음. 라자드와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 역시 코웨이 건 하나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옴.

5위에 오른 미래에셋대우는 IMMPE로부터 태림포장을 인수한 세아상역에, 6위 UBS는 미국 크레이톤(Kraton)사의 카리플렉스(CariflexTM) 사업을 인수한 대림산업에 각각 금융자문을 제공했음. 7위 HSBC는 SKC가 화학사업부 구주 49%를 매각할 때, 인수자 측 자문을 담당했음.

[법률자문] '초격차' 김앤장 변함없는 1위…율촌 초반 약진

31일 더벨이 집계한 2020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누적기준)에 따르면 김앤장은 완료기준 21건 · 조정점유율 32.82%로 법률자문 분야 선두를 기록했음. 김앤장은 조단위 대형 거래로 손꼽히던 대성산업가스 매각 자문(2조8200억), 웅진코웨이 매각 자문(1조7400억),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매각 자문(1조2000억)을 통해 조정점유율을 30%대까지 끌어올렸음. 사모펀드(PEF)운용사를 대리해 SKC코오롱PI 인수 자문(6080억), 태림포장 매각 자문(7300억), 헬스밸런스 매각 자문(2800억원) 등 수천억원대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함.

2위에 오른 광장은 완료기준 14건 · 조정점유율 13.69%를 기록함.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인수 자문(1조2000억원), 태림포장 인수 자문(7300억), 미국 듀폰(DuPont)사로부터 SiC 웨이퍼 사업부문 인수 자문(2683억) 등 큰 딜에 이름을 올리며 자문 실적을 끌어올렸음.

3위를 기록한 율촌은 광장을 턱밑까지 추격하며 존재감을 발휘했음. 지난해 전체 실적 5위에 그쳤던 율촌은 웅진코웨이 인수(1조7400억), 네이버파이낸셜 인수(7993억) 등 빅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정점유율 13.58%를 기록. 이밖에 헬스밸런스 인수 자문(2800억원), 케이에스넷 인수 자문(2607억),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외식사업부 매각 자문(1000억원) 등에도 참여.

세종은 4위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표를 받음. 올 1분기도 강점을 지닌 크로스보더 딜(국경 간 M&A)에 꾸준히 참여하며 실적 견인을 책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미국 듀폰(DuPont)사로부터 SiC 웨이퍼 사업부문 인수 자문(2683억), SKC 화학사업부 해외 매각 자문(5358억)을 맡아 무난한 실적을 쌓음. 오렌지라이프 인수 자문(9500억), SKC 코오롱 PI 매각 자문(6069억), 케이에스넷 인수 자문(2607억)도 완료.

태평양은 올 1분기 조정점유율이 3.97%에 그치며 6위로 하락. 지난해 2위였던 태평양은 SK브로드밴드 주식 매각 자문(1939억), 성동조선해양 매각 자문(2000억)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음.

[회계자문] 삼일PwC 1위로 산뜻한 출발…뒤쫓는 삼정KPMG

삼일PwC가 2020년 1분기 인수 · 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경쟁사를 제치고 앞서 나갔음. 삼일PwC는 2위인 삼정KPMG와의 조정점유율 격차도 7%포인트 벌려 놓은 상태. 반면 지난해 조단위 딜을 쓸어담으며 왕좌에 올랐던 딜로이트안진은 1분기 3위로 내려앉음.

더벨이 집계한 올해 1분기 M&A 회계자문 부문(완료기준) 리그테이블에서는 삼일PwC가 완료 기준 조정점유율 40.63%로 1위에 올랐음. 삼일PwC가 관여한 거래 건수는 총 15건, 총 거래 규모는 8조8772억원에 달함. 삼일PwC는 1분기 조 단위 딜 실적을 3건이나 쌓음. 지난달 거래가 완료된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대성산업가스(2조5000억원) 딜에서 매각 측인 MBK파트너스를 도왔음. M&A 업계 '핫딜' 이었던 코웨이(1조7400억원) 거래에선 인수자인 넷마블 자문단으로 참여. SK그룹의 딜 다수를 수행하기도 함.

삼정KPMG는 거래 건수는 15건으로 삼일PwC와 같지만 거래 규모에서 밀려 아쉽게 2위를 차지. 1분기 삼정KPMG가 관여한 거래 규모는 6조1847억원 수준. 조정점유율은 33.48%로 1위 삼일PwC와는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남. 대성산업가스에서 인수자인 맥쿼리PE 자문사로 활약했고, 코웨이 딜에서 매도자인 웅진그룹을 도왔음. 글랜우드PE의 SKC코오롱PI 인수(6080억원), IMM PE의 하나투어 지분 인수(1289억원), 케이엘앤파트너스의 맘스터치 인수(1938억원) 거래에도 관여해 실적을 쌓음.

지난해 말 완료기준 정상에 등극했던 딜로이트안진은 조정점유율 9.96%로 1,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3위로 떨어짐. 딜로이트안진은 1분기 4건의 거래에서 자문단으로 활약해 수임한 딜의 규모는 2조366억원임. 대표적인 자문 건은 SKC의 KCTF 인수 거래. 딜로이트안진은 이 거래에서 SK그룹 상대방인 매각 측 KKR의 자문단으로 활약했음. 이외 성동조선해양 등 전문성이 필요한 거래에 다수 자문을 제공함.

EY한영은 1분기 4위(조정점유율 7.46%)로 출발. 거래 건수는 3건, 거래규모는 1조5265억원임. EY한영은 세아상역의 태림포장 인수(7300억원), SKC의 화학사업부 지분 매각 건에선 PIC 측에 자문을 제공함. 스톤브릿지캐피탈의 밴업체 케이에스넷 인수 거래에 인수자문사로 나서기도 했음. 한편 빅4 회계법인을 뒤따른 곳은 선일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은 지역에서 진행된 거래를 다수 자문해 5위에 랭크됨.

[합병·분할·JV] '앱티브 자문' 김앤장, 전체 절반 독식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업 합병거래(분할 및 JV 포함) 규모는 완료기준 9조1327억원, 15건을 기록.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완료기준 규모와 건수가 모두 늘었음. 2019년 1분기에는 3조5413억원, 건수 14건의 합병거래가 완료. 합병 · 분할 · JV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법률자문사는 김앤장. 김앤장은 완료기준(5건 · 5조2420억원)과 발표기준(2건 · 9772억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감.

2020년 1분기 종결된 합병 · 분할 · JV 거래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문 JV 설립 건(4조7900억원)임.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플랫폼 상용화 계획을 갖고 미국 앱티브(APTIV)와 JV 설립을 마무리했음. 김앤장은 현대차-앱티브 JV 설립 자문실적을 쌓으며 경쟁 법무법인과 격차를 벌렸음. 이외에도 김앤장은 휠라코리아-휠라홀딩스 분할(2963억원) 및 코리아세븐의 롯데피에스넷 · 바이더웨이 합병(948억원) 등 거래규모 기준 10위권 이내 딜을 다수 수임. 김앤장은 2017년 1분기 이후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모습.

김앤장의 뒤를 이은 법률자문사는 법무법인 세종. 세종은 5건 · 2조5152억원의 거래를 완료해 2위에 올랐음. 세종은 2019년 1분기에는 합병 · 분할 · JV 실적을 쌓지 못했던 반면 2020년에는 연초부터 5건을 마무리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음. 세종은 SKC의 화학사업 분할거래(1조5000억원), 롯데케미칼-GS에너지 JV(롯데GS화학) 설립(8000억원), 프렉스에어코리아-린데에스지코리아

합병(1462억원), 해태제과식품의 해태아이스크림 분할(690억원) 등 시장의 관심을 받은 합병거래를 수행.

3위부터 7위(법무법인 KCL, 율촌, 광장, 지평, 디라이트)에 랭크된 법률자문사는 모두 2020년 1분기에 완료기준 실적을 1건씩 쌓았음. 2019년 1분기에도 해당 순위에 올랐던 자문사들은 각각 1건씩 합병 · 분할 · JV 거래를 마무리했던 바 있다. 건수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수임한 딜 규모가 자문사들의 순위로 직결됨.

같은 기간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은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 율촌은 하림의 그린바이텍 합병을, 광장은 뉴레이크얼라이언스-SK텔레콤의 JV(인바이츠헬스케어) 설립을 각각 자문함. 2020년 1분기 조정점유율 기준으로 율촌이 4.92%를 광장이 3.8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불과 1.09%포인트에 불과. 따라서 2분기 이후 성과에 따라 2020년 합병 · 분할 · JV 분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됨.

[부동산자문] 새해에도 부동산 왕좌 지켜낸 세종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부동산 · SOC(사회간접자본) 거래시장 규모는 완료기준 22건 · 8조1937억원, 발표기준 20건 · 3조7992억원을 기록. 코로나19의 영향이 투자은행(IB) 업계 전반에 침투한 가운데 부동산 분야만큼은 완료된 거래액이 지난해 1분기 3조3197억원을 앞서는 모습. 완료기준 규모 1위를 차지한 거래은 JR투자운용 등이 리츠(REITs)를 통해 인수한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타워(Finance Tower) 인수거래. 해당 거래는 총 1조5540억원 규모로 이뤄짐. 뒤를 따른 건은 LG전자가 매각한 베이징 소재 트윈타워 거래로 총 1조3750억원 규모를 기록함.

1분기 완료기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한 법률자문사는 세종이었음. 총 5건의 거래를 완료해 3조201억원의 실적을 올렸음. 자문건수와 거래금액을 동시에 반영한 조정점유율은 22.57%를 기록, 18.99%를 나타낸 김앤장을 제쳤음. 세종은 브뤼셀 파이낸스타워(1조5540) 인수자문과 남산스퀘어(5050억원) 등 대형 거래 다수를 완료. 지난해 리그테이블에서 부동산 법률자문 분야 1위를 차지했던 세종은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도 1위를 무난하게 수성할 것으로 보임.

2위를 차지한 법률자문사는 김앤장. 김앤장은 1분기 동안 총 6건 · 1조8762억원의 거래를 완료. 김앤장이 이 기간동안 수행한 가장 큰 거래자문은 CJ제일제당의 가양동 부동산 매각자문으로 규모는 1조500억원이었음. 세종이 매각 법률자문을 수행한 남산스퀘어 거래에서도 김앤장이 인수자 측 법률자문을 수행함.

3위와 4위는 각각 태평양과 광장이 차지. 태평양은 총 5건 · 2조1968억원의 완료실적을 기록함. 광장은 같은 기간동안 4건 · 1조8069억원의 완료실적을 올렸음. 두 자문사 모두 LG전자의 베이징 트윈타워가 가장 큰 실적이었음. 다만 태평양과 광장은 1분기 발표기준 순위가 각각 1 · 2위에 올라있어 거래가 완료될 경우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음.

5위를 차지한 곳은 넥서스로 지난해 리그테이블 부동산 법률자문 2위의 기세를 이어갔음. 대형 법무법인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

2020년 1분기 M&A 상위 10 거래

완료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	맥쿼리PE	2,500,000	
2	코웨이(지분 25.08%)	넷마블	1,740,000	
3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지분100%)	SKC	1,200,000	
4	오렌지라이프 (주식 40.85%)	신한금융지주	950,000	
5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30%)	미래에셋대우	799,285	
6	태림포장(지분60%)/ 태림페이퍼(지분100%)	세아상역	730,000	
7	Kraton Corporation (Cariflex 사업부)	대림산업	618,200	크로스보더
8	SKC코오롱PI (주식 54.06%)	글랜우드 PE	608,000	
9	DuPont (SiC Wafer 영업양수100%)	SK실트론	536,580	크로스보더
10	SKC (화학사업부 구주 49%)	외국 기업	535,800	

발표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현대오일뱅크/ 코람코자산신탁	1,332,100	
2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 사업 영업양도)	한앤컴퍼니	382,500	
3	Darwin LNG Pty Ltd (구주 25%)	SK E&S	345,193	크로스보더
4	케이에스넷(지분 100%)	스톤브릿지캐피탈/ 페이레터	260,700	크로스보더
5	이누스(지분 100%)	이앤에프 프라이빗에쿼티	217,000	
6	카카오엠(신주)	앵커에쿼티파트너스	210,000	
7	유비케어(지분 52.65%)	녹십자	208,864	
8	Sixt SE(구주 41.9%)	현대캐피탈	200,920	크로스보더
9	피지오겔(브랜드 아시아 및 북미 지역 사업권)	LG생활건강	193,683	크로스보더
10	포스코케미칼(JV-OCI)	OCI	136,000	

2020년 1분기 기업인수 · 매각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6,028,570	35.44	4
2	크레디트스위스	3,074,323	18.07	5
3	Lazard	2,500,000	14.70	1
4	한국투자증권	1,740,000	10.23	1
5	미래에셋대우	730,000	4.29	1
6	UBS	618,200	3.63	1
7	HSBC	535,800	3.15	1
8	삼일PwC	534,952	3.14	10
9	삼정KPMG	303,000	1.78	6
10	FT Partners	260,700	1.53	1
11	딜로이트 안진	200,000	1.18	1
12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93,943	1.14	1
13	KR&Partners	122,000	0.72	4
14	다이와증권	100,000	0.59	1
15	큐더스	29,000	0.17	1
16	Newbridge Partners	26,500	0.16	1
17	맥쿼리증권	13,000	0.08	1
계		17,009,989	100.00	41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크레디트스위스	1,677,293	33.49	2
2	언스트앤영 한영	1,361,200	27.18	2
3	한국산업은행	402,547	8.04	2
4	JP모간	345,193	6.89	1
5	삼정KPMG	329,011	6.57	7
6	FT Partners	260,700	5.21	1
7	삼일PwC	222,285	4.44	8
8	Greenhill	193,683	3.87	1
9	KR&Partners	122,000	2.44	4
10	딜로이트 안진	55,000	1.10	1
11	Newbridge Partners	26,500	0.53	1
12	맥쿼리증권	13,000	0.26	1
계		5,008,411	100.00	31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8,886,319	46.99	16	34.04	40.52
2	삼정KPMG	6,209,694	32.84	16	34.04	33.44
3	딜로이트 안진	2,094,580	11.08	5	10.64	10.86
4	언스트앤영 한영	1,526,500	8.07	3	6.38	7.23
5	선일회계법인	43,000	0.23	3	6.38	3.31
6	현대 회계법인	80,000	0.42	1	2.13	1.28
7	태성회계법인	29,000	0.15	1	2.13	1.14
8	우인 회계법인	26,500	0.14	1	2.13	1.13
9	한울 회계법인	15,000	0.08	1	2.13	1.10
계		18,910,593	100.00	47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2,441,794	43.62	10	28.57	36.09
2	삼정KPMG	853,076	15.24	12	34.29	24.76
3	언스트앤영 한영	1,830,764	32.70	4	11.43	22.07
4	딜로이트 안진	403,000	7.20	5	14.29	10.74
5	선일회계법인	43,000	0.77	3	8.57	4.67
6	우인 회계법인	26,500	0.47	1	2.86	1.67
계		5,598,134	100.00	3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9,555,703	41.38	21	22.11	31.74
2	법무법인 광장	2,691,944	11.66	16	16.84	14.25
3	법무법인 율촌	3,612,372	15.64	10	10.53	13.09
4	법무법인 세종	2,741,063	11.87	10	10.53	11.20
5	법무법인 태평양	628,264	2.72	8	8.42	5.57
6	Simpson Thacher & Bartlett	1,850,000	8.01	2	2.11	5.06
7	KL파트너스	188,000	0.81	5	5.26	3.04
8	법무법인 화우	146,200	0.63	5	5.26	2.95
9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318,000	1.38	4	4.21	2.79
10	법무법인 세움	35,623	0.15	5	5.26	2.71
11	Paul Hastings	618,200	2.68	1	1.05	1.86
12	Ashurst	535,800	2.32	1	1.05	1.69
13	법무법인 KCL	55,643	0.24	2	2.11	1.17
14	법무법인 기현	59,139	0.26	1	1.05	0.65
15	법무법인 바른	29,000	0.13	1	1.05	0.59
16	Clifford Chance	13,000	0.06	1	1.05	0.55
16	CMS	13,000	0.06	1	1.05	0.55
18	법무법인 지평	0	0.00	1	1.05	0.53
계		23,090,952	100.00	9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광장	2,063,373	25.40	13	17.11	21.25
2	김 · 장 법률사무소	2,198,405	27.06	11	14.47	20.77
3	법무법인 세종	846,570	10.42	9	11.84	11.13
4	법무법인 태평양	627,511	7.72	9	11.84	9.78
5	법무법인 율촌	534,700	6.58	7	9.21	7.90
6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357,000	4.39	4	5.26	4.83
7	법무법인 지평	447,500	5.51	3	3.95	4.73
8	KL파트너스	291,864	3.59	3	3.95	3.77
9	법무법인 세움	25,623	0.32	4	5.26	2.79
10	법무법인 화우	97,500	1.20	3	3.95	2.57
11	Allen&Overy	193,683	2.38	1	1.32	1.85
12	Baker & McKenzie	172,596	2.12	1	1.32	1.72
13	Latham & Watkins	100,460	1.24	1	1.32	1.28
14	법무법인 바른	54,000	0.66	1	1.32	0.99
15	법무법인 KCL	46,550	0.57	1	1.32	0.94
16	법무법인 기현	40,000	0.49	1	1.32	0.90
17	CMS	13,000	0.16	1	1.32	0.74
17	Clifford Chance	13,000	0.16	1	1.32	0.74
19	Druces LLP	0	0.00	1	1.32	0.66
19	Clyde & Co	0	0.00	1	1.32	0.66
계		8,123,336	100.00	76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2020년도 1분기 합병 · 조인트벤처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4,790,000	45.70	1
1	골드만삭스	4,790,000	45.70	1
3	한국투자증권	902,143	8.61	1
계		10,482,143	100.00	3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	-	-	-	-
계		-	-	-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딜로이트 안진	902,143	100.00	1	100.00	100.00
계		902,143	100.00	1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	-	-	-	-	-	-
계		-	-	-	-	-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5,242,041	57.40	5	33.33	45.37
2	법무법인 세종	2,515,286	27.54	5	33.33	30.44
3	법무법인 KCL	902,143	9.88	1	6.67	8.27
4	법무법인 율촌	290,425	3.18	1	6.67	4.92
5	법무법인 광장	90,000	0.99	1	6.67	3.83
6	법무법인 지평	85,367	0.93	1	6.67	3.80
7	법무법인 디라이트	7,500	0.08	1	6.67	3.37
계		9,132,762	100.00	1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977,275	85.07	2	40.00	62.54
2	법무법인 광장	136,000	11.84	1	20.00	15.92
3	법무법인 세종	28,000	2.44	1	20.00	11.22
4	법무법인 디라이트	7,500	0.65	1	20.00	10.33
계		1,148,775	100.00	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2020년 1분기 M&A SOC · 부동산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딜로이트 안진	278,000	100.00	1
계		278,000	100.00	1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딜로이트 안진	278,000	97.65	1
2	삼정KPMG	6,700	2.35	1
계		284,700	100.00	2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240,000	100.00	1	100.00	100.00
계		240,000	100.00	1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240,000	100.00	1	100.00	100.00
계		240,000	100.00	1	100.00	100.00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세종	3,020,065	27.90	5	17.24	22.57
2	김 · 장 법률사무소	1,872,614	17.30	6	20.69	18.99
3	법무법인 태평양	2,196,750	20.29	5	17.24	18.77
4	법무법인 광장	1,806,900	16.69	4	13.79	15.24
5	법무법인 넥서스	445,371	4.11	5	17.24	10.68
6	법무법인 율촌	452,000	4.18	2	6.90	5.54
7	Clifford Chance	753,528	6.96	1	3.45	5.20
8	법무법인 바른	278,000	2.57	1	3.45	3.01
계		10,825,228	100.00	29	100.00	100.00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태평양	2,196,750	35.24	5	20.00	27.62
2	법무법인 광장	1,813,600	29.10	5	20.00	24.55
3	김 · 장 법률사무소	699,949	11.23	5	20.00	15.61
4	법무법인 넥서스	277,865	4.46	5	20.00	12.23
5	법무법인 세종	514,900	8.26	2	8.00	8.13
6	법무법인 율촌	452,000	7.25	2	8.00	7.63
7	법무법인 바른	278,000	4.46	1	4.00	4.23
계		6,233,064	100.00	25	100.00	100.00

Fees

2020년 1분기 ECM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801	5	20.10
2	신한금융투자	2,363	3	16.96
3	유진투자증권	2,259	3	16.21
4	유안타증권	1,036	1	7.44
5	미래에셋대우	828	2	5.94
6	NH투자증권	782	2	5.61
7	키움증권	527	2	3.78
8	한국투자증권	503	1	3.61
9	한양증권	487	1	3.50
10	삼성증권	473	1	3.39
11	SK증권	330	1	2.37
12	교보증권	306	1	2.20
13	하나금융투자	300	1	2.15
14	현대차증권	299	2	2.15
15	신영증권	252	1	1.81
16	케이프투자증권	250	1	1.79
17	IBK투자증권	139	1	1.00
총합계		13,935	29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ECM 딜(IPO, 유상증자, 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블록딜 제외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0년 1분기 기업공개(IPO)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신한금융투자	2,073	1	20.49
2	KB증권	2,000	3	19.77
3	유진투자증권	1,315	1	13.00
4	유안타증권	1,036	1	10.24
5	미래에셋대우	627	1	6.20
6	NH투자증권	541	1	5.35
7	한국투자증권	503	1	4.97
8	삼성증권	473	1	4.67
9	SK증권	330	1	3.26
10	교보증권	306	1	3.02
11	하나금융투자	300	1	2.97
12	신영증권	252	1	2.49
13	케이프투자증권	250	1	2.47
14	현대차증권	111	1	1.09
총합계		10,117	16	100.00

* 주관사가 기업공개(IPO)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0년 1분기 유상증자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943	2	27.60
2	키움증권	527	2	15.43
3	한양증권	487	1	14.25
4	KB증권	401	1	11.73
5	신한금융투자	291	2	8.50
6	NH투자증권	241	1	7.04
7	미래에셋대우	200	1	5.87
8	현대차증권	188	1	5.52
9	IBK투자증권	139	1	4.06
총합계		3,417	12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유상증자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0년 1분기 ELB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400	1	100.00
총합계		400	1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주식연계증권(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0년 DCM 전체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KB증권	8,301	13.96
2	NH투자증권	8,068	13.57
3	한국투자증권	6,315	10.62
4	SK증권	5,623	9.45
5	미래에셋대우	4,329	7.28
6	키움증권	2,651	4.46
7	이베스트투자증권	2,413	4.06
8	한화투자증권	2,361	3.97
9	신한금융투자	2,275	3.82
10	현대차증권	1,751	2.94
11	하이투자증권	1,669	2.81
12	유안타증권	1,369	2.30
13	교보증권	1,316	2.21
14	한국산업은행	1,304	2.19
15	부국증권	1,281	2.15
16	IBK투자증권	1,216	2.04
17	한양증권	1,069	1.80
18	삼성증권	906	1.52
19	하나금융투자	873	1.47
20	DB금융투자	668	1.12
2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662	1.11
22	신영증권	605	1.02
23	대신증권	531	0.89
24	BNK투자증권	434	0.73
25	유진투자증권	345	0.58
26	KTB투자증권	309	0.52
27	메리츠종금증권	253	0.43
28	케이프투자증권	157	0.26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5	0.26
30	카카오페이증권	79	0.13
31	흥국증권	71	0.12
32	케이알투자증권	56	0.09
33	DS투자증권	52	0.09
34	우리종합금융	8	0.01
총합계		59,475	100.00

* 주관사가 DCM딜(SB,FB,ABS)공모 발행을 진행하여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DCM 대표주관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NH투자증권	748	26.81
2	한국투자증권	573	20.52
3	KB증권	530	18.98
4	미래에셋대우	322	11.54
5	신한금융투자	145	5.19
6	키움증권	114	4.08
7	하이투자증권	113	4.03
8	유안타증권	63	2.25
9	한국산업은행	43	1.54
10	IBK투자증권	43	1.52
11	한화투자증권	33	1.16
12	교보증권	25	0.90
13	이베스트투자증권	23	0.81
14	DB금융투자	12	0.44
15	삼성증권	6	0.22
총합계		2,791	100.00

* 대표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7,771	18.60	13.71
2	NH투자증권	7,320	20.24	12.91
3	한국투자증권	5,742	17.08	10.13
4	SK증권	5,623	18.91	9.92
5	미래에셋대우	4,007	18.62	7.07
6	키움증권	2,537	22.35	4.48
7	이베스트투자증권	2,391	12.85	4.22
8	한화투자증권	2,329	15.90	4.11
9	신한금융투자	2,130	17.46	3.76
10	현대차증권	1,751	18.44	3.09
11	하이투자증권	1,556	19.68	2.75
12	유안타증권	1,306	22.43	2.30
13	교보증권	1,291	12.35	2.28
14	부국증권	1,281	15.26	2.26
15	한국산업은행	1,261	33.11	2.23
16	IBK투자증권	1,173	19.25	2.07
17	한양증권	1,069	11.63	1.89
18	삼성증권	900	18.13	1.59
19	하나금융투자	873	18.71	1.54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662	16.38	1.17
21	DB금융투자	656	12.12	1.16
22	신영증권	605	14.21	1.07
23	대신증권	531	30.90	0.94
24	BNK투자증권	434	6.88	0.76
25	유진투자증권	345	9.33	0.61
26	KTB투자증권	309	8.12	0.54
27	메리츠종금증권	253	7.07	0.45
28	케이프투자증권	157	8.69	0.28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5	9.13	0.27
30	카카오페이증권	79	11.29	0.14
31	흥국증권	71	7.10	0.13
32	케이알투자증권	56	13.95	0.10
33	DS투자증권	52	11.02	0.09
34	우리종합금융	8	8.00	0.01
총합계		56,684	17.21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1분기 일반 회사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5,894	20.59	16.82
2	NH투자증권	5,718	22.28	16.32
3	SK증권	4,121	25.05	11.76
4	한국투자증권	3,875	20.71	11.06
5	미래에셋대우	2,830	19.95	8.07
6	키움증권	1,673	20.28	4.78
7	현대차증권	1,639	20.61	4.68
8	신한금융투자	1,562	18.82	4.46
9	한화투자증권	1,457	20.15	4.16
10	IBK투자증권	1,078	20.92	3.07
11	하이투자증권	857	19.43	2.45
12	삼성증권	839	19.85	2.39
13	하나금융투자	765	20.13	2.18
14	교보증권	408	15.38	1.16
15	유안타증권	377	20.05	1.08
16	대신증권	349	23.74	1.00
17	이베스트투자증권	341	20.67	0.97
18	DB금융투자	270	17.94	0.77
19	한양증권	255	17.59	0.73
20	신영증권	195	24.07	0.56
21	BNK투자증권	110	18.33	0.31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0	20.00	0.29
22	부국증권	100	18.18	0.29
24	유진투자증권	55	18.33	0.16
24	메리츠종금증권	55	13.75	0.16
26	카카오페이증권	50	16.67	0.14
27	KTB투자증권	20	10.00	0.06
27	케이알투자증권	20	20.00	0.06
29	한국산업은행	15	15.00	0.04
30	DS투자증권	10	10.00	0.03
31	케이프투자증권	4	4.00	0.01
31	흥국증권	4	4.00	0.01
총합계		35,045	20.89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1분기 여전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이베스트투자증권	1,990	12.16	15.94
2	한국투자증권	1,033	8.01	8.28
3	한양증권	814	10.52	6.52
4	NH투자증권	788	9.06	6.31
5	KB증권	761	9.52	6.09
6	한화투자증권	697	9.81	5.58
7	부국증권	686	9.94	5.50
8	SK증권	642	10.24	5.14
9	교보증권	622	8.52	4.98
1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560	16.97	4.49
11	DB금융투자	385	9.88	3.08
12	하이투자증권	352	11.01	2.82
13	미래에셋대우	342	7.95	2.74
14	BNK투자증권	324	5.68	2.59
15	유진투자증권	290	8.54	2.33
16	KTB투자증권	289	8.01	2.31
17	유안타증권	257	9.18	2.06
18	메리츠종금증권	192	7.51	1.53
19	신한금융투자	186	8.46	1.49
20	키움증권	169	6.77	1.36
21	신영증권	167	6.42	1.34
2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5	9.13	1.24
23	케이프투자증권	153	8.97	1.22
24	현대차증권	110	8.44	0.88
25	하나금융투자	108	12.46	0.86
26	IBK투자증권	93	13.32	0.75
27	한국산업은행	70	17.50	0.56
28	흥국증권	67	7.44	0.54
29	삼성증권	62	8.31	0.49
30	DS투자증권	42	11.30	0.33
31	케이알투자증권	36	11.93	0.29
32	카카오페이증권	29	7.25	0.23
33	대신증권	9	9.00	0.07
34	우리종합금융	8	8.00	0.06
총합계		12,486	9.54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1분기 ABS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한국산업은행	1,176	35.54	12.85
2	KB증권	1,117	21.61	12.20
3	SK증권	860	12.26	9.40
4	미래에셋대우	836	27.50	9.13
5	한국투자증권	834	41.70	9.11
6	NH투자증권	814	45.22	8.89
7	키움증권	694	115.67	7.58
8	유안타증권	672	58.76	7.34
9	부국증권	495	52.46	5.41
10	신한금융투자	381	22.43	4.17
11	하이투자증권	347	115.67	3.79
12	교보증권	261	52.27	2.86
13	신영증권	243	28.65	2.66
14	한화투자증권	175	55.62	1.91
15	대신증권	173	115.66	1.90
16	이베스트투자증권	60	10.00	0.66
17	메리츠종금증권	6	1.00	0.07
18	현대차증권	2	1.00	0.03
18	IBK투자증권	2	1.00	0.03
1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1.00	0.03
총합계		9,153	29.72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